*SF-Action Thriller*

*파이널*

*(FINAL)*

등장인물

**오민아(29)**

인류 최초 군사 통합정부 UNF 특수팀 팀장.

‘강철 유령’이라는 별명답게 생존율 10%도 되지 않는 로봇과의 전투에서 UNF 내 최고의 생존율을 자랑한다. 술, 음란패설,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낙천적인 다혈질 여자지만 전투시 상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작전수행력과 냉정한 결단력으로 맡은 임무는 반드시 완수해낸다.

로봇 과학자인 아버지와 자원탐사 연구원이었던 어머니로 인해 깊은 상처를 숨기며

로봇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인류를 파멸시킬 로봇의 치명적인 계획을 막기 위해 로봇 점령지 둠에 투입되고..,

로봇 사회를 이끄는 5인회 암살을 수행하다 로봇전쟁의 비밀과 그녀의 가혹한 운명과

맞닥드린다. 그녀의 생존 이유는 “더 많이 깡통을 박멸하는 것!!”

그녀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3가지.. “ 깡통! 아이! 무능력한 남자.. 특히 장교!!”

*류지석(33)*

UNF 감옥에 종신범으로 수감된 전직 UNF 특수팀 대위.

5인회 암살작전에 참가한 적이 있는 한없이 가볍고,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사내.

사면을 조건으로 민아팀과 합류하지만 임무 수행에 매달리는 팀장 민아와 시종일관 부디친다.

날이 무디지만 부서지지 않는 도끼 칼과 괴력인 왼손 팔을 감추고 있다.

로봇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진 민아에게 의문과 혼란을 주는 인물.

*이반(42) 중사*

민아와 같은 팀으로 러시아계 폭탄 전문 하사관.

규율과 원칙을 신봉하는 본 투 군인.., 하지만 어김없이 늘 일이 꼬인다.

*페이 병장(27)*

민아와 같은 팀으로 중국계 원샷 원킬의 특급 저격수.

경이적인 참을성으로 피 튀는 전장 속에서도 늘 외모를 챙기는 사랑 지상주의자.

생각보다 감정에 충실하다.

*신지 일병(21)*

민아와 같은 팀으로 로봇 공학을 전공한 일본계 의무병.

“아는 것이 힘이다.”를 외치는 진정한 전장 속 오덕.

*SS(47)*

UNF 동북아 정보사령관.

자신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가득찬 독선적 인물.

*광대(32)*

SS가 운용하는 정보원.

겁이 많고 몸을 무지 많이 사린다.

*정원사(57)*

다크시티 5인회 일원으로 최고 고령 로봇.

구식 로봇이지만 가장 많은 경험치를 보유한 현자.

*비셔스(29)*

다크시티의 5인회 일원으로 다크시티 치안 책임관.

메시아적인 안목을 가진 균형 잡힌 지성체로 가장 진화한 로봇.

*사냥꾼(34)*

다크시티 5인회 일원으로 동물 관리관.

호탕하며 강력한 몸을 가진 로봇.

*교수(48)*

다크시티 5인회 일원으로 데이터베이스 책임자.

지적 열망으로 가득 찬 호기심 많은 로봇.

*사령관(43)*

다크시티 5인회 일원으로 로봇군단 사령관

인간과의 전투에서 냉혹한 작전으로 악명 높다.

*수진(32)*

사령관을 사랑하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전직 발레리나.

*훈이(7)*

길 잃은 고장 난 로봇.

*R47*

오직 인류 소멸을 위해 만들어진 둠시티 주력 전투 로봇.

총탄 정도는 튕겨 내버리는 은빛 티타늄 몸체에 붉은 눈,

양 팔에 기관총과 칼날 같은 손가락, 강력한 다리를 가졌다.

매 시간마다 중요 정보를 업데이트, 공유하며 인간을 발견하면 달려가 소멸될 때까지 공격한다.



시놉시스

결국, 인류는 도시에서 쫓겨났다.

그 날은 자원고갈에 허덕이던 인류가 신의 선물이라 불리던 뉴소스를 발견한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다.

석유와 금속자원을 대체할 뉴소스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만 해도 인류는 환호에 휩쌓였다. 하지만 그 환호성이 탐욕과 의심으로 변해가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건.., 발견된 뉴소스가 지구 땅 속 깊은 곳에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탐욕에 불타는 각국들은 뉴소스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인접국과 필사적인 경쟁을 벌렸고 급기야 여기저기서 국지전이 벌어졌다. 게다가 뉴소스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죽음은 불길한 전운을 더욱 더 부채질 했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UN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다. 하지만 탐욕적인 적대감만을 확인한 채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후.., 각국들은 뉴소스 확보에 더욱 더 총력을 기울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밀하게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치명적인 무기란.., 명령버튼만 누르면 질문이나.., 의문따윈 갖지 않고 적군을 공격하는 인공지능이 장착된 전투로봇이다. 그 중에 프로토 타입 R47은 강력한 은빛 티타늄 몸체에 날카로운 팔과 기관총을 장착하고 붉은 눈을 좌우로 움직이며 적군을 섬멸하는 완벽한 살인기계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전투로봇 R47이 대량으로 만들어지자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동물들의 집단적인 죽음에도 불구하고 뉴소스 개발을 강행하는 각국 수뇌부들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자원고갈에 위기를 느꼈던 사람들은 당장 자기 집 안마당이 풍족하고 따뜻하기를 바랬다.

결국..,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뉴소스 광산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은 점점 묻혀져 갔고 전투로봇과 뉴소스 개발은 한층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구 전역에서 새자원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던 날.

밝아오는 아침과 함께 전선에 배치된 R47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R47은 어이없기도 적군뿐만 아니라 붉은 눈에 비치는 모든 인간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마치 병균을 박멸하듯 인류를 무자비하게 박멸해나간 R47. 당황한 수뇌부들이 두꺼운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공격과 동시에 인공위성, 네트워크, 첨단 시설들이 로봇에게 장악된 바람에 무기력하게 연패만을 거듭했다. 게다가 인간을 발견하면 저돌적으로 달려와 갈기갈기 찟어버리는 R47 앞에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지구 전역에서 파죽지세로 인류를 공격하던 로봇들은 마침내 인류를 도시에서 쫓아냈다.

도시에서 쫓겨난 인류는 궁금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로봇 눈을 피해 깊은 산과 오지로 숨어든 인류만이 무자비한 로봇 공격에서 겨우 살아남았고, 인류는 살기 위해 도시와 문명을 버려야만 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지구 전역에 뿔뿔히 흩어져 있던 인류는 로봇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하나된 군사 통합 정부 UNF가 만들어진다.

UNF는 강력한 전시체제를 유지했다. 생필품은 배급제로 운영되었고 남,녀를 불문하고 일정기간 군복무를 마쳐야 했으며 언론은 강력하게 통제되었다. 또한 로봇은 인류와 자연을 파괴한 원수이고 로봇 점령 지구인 ‘시티’는 생명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삭막한 기계도시로 변했다며 로봇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고치시켰다.

또한 디지털화된 기계들을 전면 사용금지 시켰는데.., 누군가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면 신호음을 포착한 로봇들이 곧 바로 미사일을 발사해 주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인 UNF에 반감을 가졌지만, 무자비한 로봇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줄 유일한 존재가 UNF라고 굳게 믿었다.

한편.., UNF 군인들 역시 첨단 기계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적극 활용한 게릴라식 전투를 익혀야만 했다. 대신 출혈이 너무 컸는데 로봇과의 전투에서 생존율이 30%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그 혹독한 환경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특히 ‘강철유령’이라 불리는 강하부대 팀장 민아는 UNF의 전설이다.

그녀는 술과 음란패설을 즐기는 다혈질이지만 전투시 과감한 작전 수행과 냉정한 결단력으로 남자 군인들도 혀를 내두르는 언터치블이다!! 또한 로봇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강해 R47 머리를 뽀개 빼낸 메모리를 전리품마냥 군번 대신 달고 다녔다. 수 많은 전투와 수 많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부대로 다시 돌아오는 민아를 사람들은 ‘강철유령’이라고 불렀다. 매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는 그녀의 생존여부에 부대원들은 판돈을 걸기 시작했고 민아가 투입되는 전투마다 사상 최고의 판돈이 걸렸다.

한편.., UNF 수뇌부는 로봇과의 전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자원의 보고인 뉴소스 광산을 끊임없이 노렸다. 민아 팀이 투입된 전투에서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뉴소스 광산을 손에 넣은 UNF. 하지만 뉴소스 광산은 로봇들이 미리 봉인을 해 둔 뒤였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승리에 도취된 UNF 사령부로 한 통의 전문이 전송된다.

그날 저녁 UNF 수뇌부들이 긴급하게 모이고 오랜 회의 끝에 전송문을 은밀하게 처리하기로 결정한 뒤 민아팀과 지석을 로봇 점령지구인 ‘시티’로 긴급하게 투입시킨다. 민아가 맡은 임무는 ‘시티’로 들어가 로봇 사회 최종결정권자인 ‘5인회’ 암살이다. ‘5인회’는 인류를 일거에 전멸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인류의 생존을 걸고 시티로 투입된 민아는 팀원들과 함께 5인회 몸에 내장된 키로 ‘시티’의 중심부로 들어가 발사 명령을 멈추어야 한다.

5인회 구성원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시티’ 중심으로 들어가는 민아와 팀원들. 그런데 5인회 구성원을 해치우며 중심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민아와 팀원들은 이전에 알려져 있던 로봇 사회 ‘시티’에 대해 점점 의문을 가지게 된다. 더구나 민아에게 암살당하던 5인회 구성원들은 이전부터 민아를 알고 있었기에 혼란에 빠지는 민아.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다.

민아는 극도의 혼란과 분노로 5인회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이 있는 곳을 향하고.., 그 곳에서 그토록 적개심을 가졌던 로봇들이 인류를 공격했던 이유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도 몰랐던 비밀과 가혹한 운명과 마주치는 민아.

이제 민아는 그녀가 부여받은 임무 앞에서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한다.

1. 프롤로그

지구 인구가 90억을 넘어가던 시점.

어두운 우주 속에 파랗게 빛나는 지구,

다가가면.., 지구 주위를 떠다니는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보인다.

지구의 밤을 화려하게 밝히는 불빛들이 휘황찬란하다.

순간, 그 불빛들이 도미노처럼 꺼지더니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동시에 지구 주위를 돌던 인공위성들이 빠르게 재배치되는데..,

거친 화면과 함께 각 나라 언어로 타진되는 뉴스 속보들.

인공위성, 네트워크, 전력망이 동시다발적으로 해킹을 당해 가동 불능에 빠진다.

불타는 도시들과 땅으로 추락하는 여객기들, 바다 위 배들도 서로 충돌해

시꺼먼 연기를 내품으며 바다 밑으로 가라 앉는다.

짐을 챙겨 도시를 탈출하는 공포에 질린 사람들.

그 혼란 속에서 은빛 나비 머리핀을 한 어린 소녀가 노란 가방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땅에 고인 물을 보며 장난치는데,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물결 파동.

곧, **‘쿵!쿵!!’** 진동음과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바쁜 패닉에 빠진 사람들.

하지만 어린 소녀는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잘 아는 듯 빙그레 웃는데..,

어린 소녀 앞에 다가가 멈추는 검은 그림자!!

순간, **“꽈꽝!!** ”하는 굉음과 함께, 화면 어두워진다.

1. 수송기 - 밤

프로펠러 돌아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면 밝아지면..,

구식 대형 수송기 안에는 겁먹은 신병들이 얼어붙은 채 강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과 달리 무표정한 얼굴로 군번줄에 달린 메모리들을 만지작거리는 강하부대 팀장 조민아 대위.

그녀 가슴에 은빛 나비 핀이 꽂혀있고, 결투를 앞둔 검투사마냥 기이한 살기를 내 품는다.

출구 앞 지시등이 녹색등으로 깜빡거리자 여기저기 들여오는 목소리.

“강하 3분 전!!”

이젠 턱까지 탁탁 떨며 겁에 질린 여러 인종으로 꾸려진 어린 신병들.

무표정하게 메모리를 만지던 민아, 일어서더니 신병들 앞에 다가선다.

겁먹은 눈빛으로 민아를 힐긋힐긋 쳐다보는 어린 눈빛들.

민아 누구나 그렇다. 강하 전엔 언제나 몸이 떨려.

신병들 (흔들리는 눈빛들) ...

민아 하지만 이건 두려움도,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경주마가 튀어 나가기 전에 존나게 몸 푼다고 생각해!!

신병들 (민아를 쳐다보다) ..

민아 오늘 저녁 요리는 인간을 살육하기 위해 만든 기계 덩어리다.

신병들 (흔들리는 눈빛이 민아에게 고정된다)

민아 동정 따위는 기대 마라. 영웅 될 생각도 집어쳐. 그동안 빡센 훈련도, 고참들 구라도

싸그리 잊어라. .. 그 새끼들 몸에서 부품을 빼내오는 거다.

신병들 (이를 꽉 악문다)

민아 교전이 시작되면 가능한 회피해. 재수 없게 놈들과 막닥드리면..,

신병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존나리 튄다!

민아 도망칠 수 없거나, 총알마저 떨어지면..,??

신병들 그 새끼들이랑 자폭한다!!

민아 혼자 편안하게 죽을 생각 마!! (서늘한 미소) 깡통 몇 놈은 기필코 데리고 간다.

신병들 (눈에 살기) 악!!

민아 (신병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UNF의 좆같은 전통을 살려 이 악다물고 끝까지 살아남아라!

신병들 악! 악!! 악!!!

겁먹었던 신병들이 눈에 살기가 돌며 흐트러졌던 전열을 재정비한다.

민아 주위로 모여드는 러시아계 이반 중사(42), 중국계 페이 상병(26), 일본계 신지 일병(21).

이반 (러시아어) (수통에 보드카를 마시며) 우리 목에 걸린 배팅액이 역대 최고라며? 얼만데?!

신지 (일본어) (술 냄새에 손으로 코를 막으며) 94.6%!!

페이 (중국어)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정성껏 칠하며) 생존확률이 6.4%야?!

죽는다에 판돈 건 새끼들은 매번 돈 잃구만.. 계속 왜 그러는지 몰라.

신지 (일본어) 매몰 비용이지 않을까요?

페이 (중국어) (신지 머리 때리며) 그러니까 나가면 다 뒈지는 거야. 스피릿이 없어. 스피릿이..

이반 (러시아어) (민아 보며) 이번에도 우리가 또 살아 돌아 가면..,

부대 전체가 미쳐버릴 겁니다. ㅋㅋ

민아 (구식 소총을 들며) 이런 구닥다리로 깡통들과 싸우는 게 더 미친 짓이지~

수십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팀답게 전투를 앞두고도 낄낄거리는 민아와 팀원들.

그때 녹색등이 붉은 등으로 바뀌고, **‘위윙!!’** 소리와 함께 열린 철제문으로 바람이 세차게 들어온다.

민아 (손 내밀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목‘에 돈을 왕창 걸어준 멍청한 부대원들을 위해~

이반/페이/신지 (손 모으며) 악! 악!! 악!!!

팀원들을 보며 미소 짓던 민아, 망설임없이 열린 문으로 가더니 하늘 위로 몸을 던진다.

민아를 따라 수송기 밖으로 몸을 던지는 팀원들과 신병들

1. 뉴소스 광산 - 새벽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민아, 밑에는 붉은 꽃이 피어오르는 대지가 펼쳐져 있다.

더 내려가면, 낙하하던 민아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좀 더 내려가면,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민아 몸이 휘청거린다.

발 밑으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폭염들이 여기저기 솟구치고,

개미같이 떼를 지어 벙커로 돌진하는 UNF 지상군들.

벙커 안 어둠 속에서 지상군들을 노려보며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붉은 눈들!!

순간, 벙커 속에서 불꽃과 함께 다가오던 지상군들이 우르르 쓰러진다.

팔 다리가 피로 물든 채 울부짓는 지상군들, 연달이 머리가 터지고,

몰려드는 지상군을 향해 불을 뿜는 벙커 안 총구들!!

그 살육 현장 위로 빠르게 낙하하던 민아, 벙커 위를 스치듯 내려앉으며 수류탄을 까고.

불을 뿜던 벙커 안에서 시뻘건 폭염과 함께 폭발음이 터져 나온다.

1. 뉴소스 광산 지하 복도 - 아침

‘헉!헉!’ 거친 숨소리와 함께 어두운 지하 복도를 달리는 민아와 팀원들.

복도 여기저기에는 처참하게 찢겨진 UNF 지상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무시한 채 달려가는 민아와 팀원들, 두터운 문앞에 도착하고,

민아의 수신호에 능숙하게 폭탄을 설치하는 이반, 폭탄에 코기름을 바른 뒤 고개 숙인다.

‘펑!!’ 폭발음과 함께 날아가는 철문!!

1. 뉴소스 광산 컨트롤 타워 - 아침

부서진 문 틈으로 총을 겨눈 채 빠르게 진입하는 민아와 팀원들.

컨트롤 타워 안은 뉴소스를 시추하기 위한 지하로 설치된 거대한 장비가 보인다.

30미터 높이의 원통형 구조물에 거미줄처럼 얽힌 티타늄 파이프로 둘러싸여 있고,

투명 강화유리관에는 지하에서 퍼 올린 유백색 액체 뉴소스가 고압 증기와 함께 멈춰져 있다.

민아의 수신호에 일사분란하게 주위를 살피는 팀원들과 신병들.

신지는 능숙하게 시스템 장치를 점검한다. 팀원들은 각 나라 언어로 말하고 소통한다.

이반 새끼들~ 그새 우리 소문 들었나봐. 튀었을까?

페이 (주위를 둘러보며) 이게.. 그 말 많은 뉴소스?

민아 지구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자, 놈들의 유일한 에너지원.

페이 목숨 걸고 지키고 덤비는 이유가 있구나. 신지~ 아직이야? 꿈뜨졌다.

또 부품 슈킹하는 거 아냐?

이반 (수통으로 보드카 마시며) 이 오덕 자식!!

저번에도 이상한 거 만들어 부대 전체를 홀라당 날려 먹을 뻔 했잖아.

신지 (힐긋) 술이 꼬알라 돼서 장교 화장실을 폭탄으로 날린 분이 누군데요?

이반 그야 계급만 믿고 건방지게 설치니까 그랬지~ 우리 대장 반만이라도 해봐. 내가 그러나..

페이 (민아 보며) 근데 그게 정말일까요? 컴퓨터 켜면 바로 미사일 요격 당하는 거요?

민아 궁금하면 해봐. 머리가 남아있나~

신지 (시스템 해킹하며) 시스템 먹었어요!! .. 이번엔 좀 쉬운데요.

이반 매번 목숨 걸래? 쉬어가는 맛도 있어야지.

민아 (시스템 확인하다 거대 장비를 보고 다가가며) 저건 뭐야??

민아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시추 장비를 봉인이라도 하듯 여러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다.

신지 깡통 새끼들. 참 부지런해.. 그새 얼마나 업그레이드 했는지 볼까요~

손가락을 풀더니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신지.

순간, 요란하게 울리는 비상벨!!

모니터에는 타임 리미트가 뜨더니 1분에서 줄어들기 시작하고 건물이 조금씩 흔들린다.

곧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쿵! 쿵!! 쿵!!**!’ 소리들.

그 소리에 신병들 얼굴에 두려움이 확 몰려든다.

이반 뭘 건딘거야?

민아 트랩?!

페이 어쩐지.. 날로 먹는다 했어. (민아 보며) 폭탄 설치하고 나가시죠.

민아 (줄어드는 타임리미트를 본다) ..

신지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스템 침투까지 57초!! 락이 걸렸지만, .. 할 수 있슴다!

이반 (폭탄을 꺼내며) ..대장!!

민아 (고민) 신지가 해결한다. 나머진 놈들 공격에 대비해!!

민아 지시에 얼굴을 찡글이던 팀원들, 탄창을 점검하고,

신병들은 겁 먹은 눈빛으로 탄창을 확인하며 총구를 겨눈다.

‘쿵!쿵!’ 다가오던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고, 일순 조용해지는데..,

눈을 번뜩이던 민아, 팀원들에게 다른 쪽을 살피라며 수신호하고...,

민아는 신병들과 함께 소리가 멈춘 쪽을 살핀다.

순간, 민아 얼굴에 확 튀는 피!!

보면, 옆에서 따르던 신병 가슴을 뚫고 나온 날카롭게 만들어진 은빛 철제 손가락.

동시에 붉은 눈을 빠르게 좌우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R47들!!

놈들의 습격에 겁에 질린 신병들은 정신없이 총을 난사하고,

날아드는 총탄을 튕겨내며 날카로운 강철 손과 기관총으로 신병들을 짓이겨버리는 R47!!

놈들의 무자비한 살육에 얼어버린 신병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그때 ‘펑’하며 터지는 R47 머리.

민아 (정조준 사격하며) 놈들 눈을 노려!!

민아의 돌격소총이 불을 뿜RH, 연달아 터지는 놈들 머리.

그때 시스템을 조정하는 신지를 노리며 다가가는 R47.

민아는 미끄러지듯 달려가 가까스로 놈의 머리를 날려버린다.

신지도 아슬아슬하게 타임리미트를 정지시키RH, 민아를 보며 한숨 쉬는데...,

그때 그들 앞으로 다가오는 마지막 남은 R47!!

탄창을 확인하는 민아, 얼마 안 남았다.

돌격소총을 단발 사격으로 전환한 뒤 놈의 붉은 눈을 정조준하는 민아.

먹이를 노리듯 쿵쿵거리며 달려드는 R47.

**‘탕! 탕! 탕!’** 강철 손으로 총탄을 막아내며 돌진해 오더니 민아를 노리며 강철 팔을 휘두르고.

**‘탈칵!!’**하며 마지막 탄창까지 비어버린 민아, 놈의 공격에 주르륵 밀리며 넘어진다.

쓰러진 민아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는 R47, 좌우로 붉은 눈이 움직이고.

그 붉은 눈을 뚫어지게 쏘아보는 민아.

멈칫 멈칫거리는 놈의 총구!! 오류가 났는지 작동대지 않는다.

순간, 놈의 뒤통수에서 불꽃이 여러 튀고,

보면, 민아를 구하기 위해 총을 쏘는 이반과 페이.

민아, 놈에게 수류탄을 쑤셔 박고 몸을 피한다.

**“콰쾅!”** 소리와 함께 놈이 기우뚱거리고,

바닥에 있던 중기관총을 든 민아, 괴성을 내지르며 총탄을 쏟아 붓는다.

**‘드르륵륵!!!!’** 총탄 세례에 R47가 몸이 부서지며 지민에게 다가가는데,

살기 가득한 눈으로 R47을 총탄으로 짓이기는 민아.

순간 ‘펑!!’ 폭발 소리와 함께 민아 앞으로 데굴데굴 굴러오는 놈의 머리.

떨어지는 지민의 땀이 시뻘겋게 달구어진 총구에 ‘쉬이익~’거리며 신음소리를 낸다.

동시에, 타임리미트가 멈추고, 키보드 앞에서 식은땀을 딱는 신지.

거친 숨을 내쉬는 민아, 깜빡이는 놈의 붉은 눈을 쏘아보다 대검으로 연달아 내리치고,

놈의 강철 머리를 쪼갠 뒤 안에서 메모리를 끄집어내는 살기 가득한 민아!!

*파이널*

1. UNF 사령부 상황실 - 오후

‘타탁!! 타이프 소리 들리고,

전자 장비라곤 찾아보기 힘든 UNF 상황실.

로봇 반란 이후 50년대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간 인류에게 디지털 사용은 금기다.

상황실 천장 곳곳에는 늘어진 붉은 백열등이 달려있고, 장교들이 나무 막대와 색색의 핀으로

전선과 부대 위치를 손으로 표시하고 있다. 주변에는 손으로 직접 쓴 전황 보고서가 책상마다

쌓여 있고 다이얼식 전화기와 한쪽 벽면에는 모스 부호를 보내는 통신병들이 끊임없이 손가락을

움직인다. 기침 소리마저도 크게 들릴 듯 조용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군인들.

그때 ’드르륵!!‘ 요란하게 울려되는 아날로그 모르츠 전송기.

곧, 한 통의 전송문이 전송기에 출력되자, 확인하는 암호장교, 눈이 확 커진다.

1. 사령부 복도 - 오후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덩치 장성, 커다란 문 앞에 멈추고,

옷차림을 다시 정리한 뒤, 톡톡톡..,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다.

-'일급기밀'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전송문을 움켜쥐고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달리는

젊은 암호장교. 주변 장교들이 쳐다보지만 무시하고 달린다.

.

-전송문이 고위 장교에게 전해지고,

전송문을 읽던 고위 장교, 망설임 없이 전송문을 들고 어디론가 황급히 향한다.

-회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넓은 휴게실. 창가에 모인 장성들이 차를 마시며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그들 중 가장 덩치가 큰 장성이 농담을 하자 다들 웃고, 그때 달려온 고위 장교가

전송문을 내민다. 대충 전송문을 읽던 장서,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올라가는 장성, 가슴에 달린 훈장이 달그락거릴만큼 서두른다.

정보국 특수 구역의 무거운 철제문 앞에 다다르자, 그제야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제복을 정돈하고, 금색 단추를 하나하나 확인한다. 크게 숨을 쉬더니 톡톡톡...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다.

1. 정보 사령관실 - 오후

햇살이 저물어가는 넓은 방에 책상 하나만 덩그렇게 있는 사령관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들이 한 치 흐트럼없이 정돈되어 있고,

그 보고서들을 일일이 검토하며 꼼꼼히 결제하는 정보 사령관 SS(43).

들어온 장군은 ‘일급기밀’이라고 찍힌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나간다.

문이 닫히고, 검토하던 보고서를 결제한 뒤 장군이 가져온 보고서를 열어보는 SS.

담담한 얼굴에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밀려든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담배를 꺼내드는 SS, 성냥으로 불을 붙인 뒤 가슴 속 깊이 빨아들인다.

붉은 노을빛이 창을 통해 스며드는 넓은 정보 사령관실.

불필요한 가구 하나 없이 오직 검은 호두나무 책상 하나만 홀로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가 면도칼처럼 정리되어 있고,

문서마다 서류 클립이 똑같은 위치에 정확하게 물려 있다.

한 치 흐트러짐 없는 군복 차림으로 문서를 꼼꼼히 살피는 정보 사령관 SS(43).

장군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각하..

장군의 요청에 쳐다보지도 않고 보고서를 검토하는 SS.

장군은 침도 못 삼긴 채 전송문을 결제안 위에다 조심스럽게 올려 놓고 경례하고 나간다.

문 닫히고, 마지막 결재를 마친 SS, 장군이 내려놓은 ‘일급 기밀’ 전송문을 열어본다.

순간 투명한 눈동자가 미묘하게 떨리고,

책상 중앙 서랍을 열어 사용한 지 오래된 담배갑을 꺼낸다.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인 뒤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는 SS.

얼굴에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몰려온다.

1. UNF 동북아 사령부 - 밤

폐허가 된 도시 외곽에 위성 감시를 피하기위해 지하로 파고 들어간 벙커.

그 주위를 정보사 친위대가 그림자처럼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채 구식 짚차들이 속속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는 장성들의 발걸음이 다급하고 무겁다.

1. UNF 회의실 - 새벽

전자기파를 차단할 수 있는 두터운 강철로 둘러싸인 회의실.

촛불 아래 UNF 수뇌부들 얼굴에 짙게 그림자가 지어져 있다.

간간이 흘러나오는 무거운 한 숨 소리가 정적을 깨트린다.

그때 무거운 철문 열리고, 백발의 수뇌1과 함께 검은 군복 차림의 SS가 들어온다.

모든 시선이 SS에게 쏠리며,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나는 수뇌부들

수뇌1 결정은... 하셨습니까?

수뇌2 ..그게... 인류 역사상 중대한 결정이 될 일이라서...

SS의 차가운 눈빛이 수뇌부들을 훑어본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전송문을 보며 굳은 얼굴을 하는 수뇌부들.

눈치 보는 수뇌부들 대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뇌3.

수뇌3 인류의 미래가, 아니... 존속 자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 할 수 없습니다.

수뇌2 (얼른) 맞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라도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수뇌3과 수뇌2의 발언에 술렁이는 수뇌부들.

수뇌1이 SS 눈치를 살핀다.

SS (미소) 좋은 대안이라도 나온 모양이군요~

수뇌3 그게 아니라... 적어도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우선...

SS ..진실이라..

수뇌들 (숨 죽이고 SS를 바라본다.) !!

SS (천천히 일어서며) 진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진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은 더 이상 진실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수뇌3 .. 하지만, 절차상...

SS (손으로 저지하며) 깡통들 눈을 피해 도망 다니다 겨우 만든 UNF입니다.

북미는 초토화되었고, 유럽은 마지막 통신이 끊긴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수뇌부 응시하며) 남은 건... 우리 뿐입니다. 그런데 절차? 진실?!

수뇌3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수뇌2 맞습니다. 이 전송문이 새어나가기라도 해보세요. 하나 남은 UNF마저 깨질 게 뻔합니다.

또 다시 우왕좌왕하다... 이번엔 정말 끝장날 겁니다.

수뇌1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토론할 시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뇌3 (모두가 쳐다보자 힘없이 자리에 털석 앉는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모두가 SS를 주시한다.

책상 위에 있는 ‘일급 기밀’이 찍힌 전송문을 드는 SS.

SS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인류 미래가 달린 일인만큼 보안에 신경 써 주시고요.

전송문을 집어든 SS, 촛불 위로 가져가자 연기와 함께 허공으로 사라지는 전송문.

촛불에 얼른거리는 SS 얼굴, 화면 어두워진다.

1. UNF 부대 - 오후

칠흑같은 어둠. 둔탁한 기계음 울리고, 화면 점점 밝아지면.

수송기 철제문에서 피와 흙으로 얼룩진 군복 입은 민아와 팀원들이 걸어 나온다.

수송기 앞에서 전사자가 담긴 검은 영현백을 정리하는 군인들,

민아와 팀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지나가자 공포와 질투가 뒤섞인 채 힐긋힐긋 째려본다.

군인1 씨발.. 또 살아 돌아 왔네..

군인2 뭐야 도대체.. 작전 나간 병력 8할이 당했다구만.

군인3 ..쟤들 뭔가 있어..

군인2 나도 들었어. 근데 진짜야? .. 물건 막 옮기고, 전파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힘이 또..

군인1 초능력자?! 구라도 정도껏 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군인2 그니까 매번 깡통 새끼들한테 살아남지. (영현백 들며) 다들 죽어 돌아오는데 말이야.

군인3 (민아 보며) 특히 저 팀장 있지? 깡통들 사이에서 유령으로 불린다나 어쩐대나..

깡통 머리를 뽀개 메모리를 전리품으로 모은대. 존나 으시시하다니까..

떨어지는 해를 보며 걸어가는 민아와 팀원들 뒷모습이 석양에 일렁거린다.

1. 부대 샤워실 - 오후

뿌연 수증기가 가득 찬 샤워실에서 세찬 물줄기 소리가 들려온다.

군복을 입은 채 샤워 줄기를 맞고 있는 민아, 수증기로 얼룩진 거울을 닦으면,

물소리와 함께 이전 기억들이 떠오른다.

- 비 내리는 훈련소에서 신병들과 함께 혹독한 훈련을 하고 있는 10대 민아.

모자 쓴 교관이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지르자 그때마다 겁먹은 채 움찔거린다.

- 진흙탕 속에서 남자 군인들에 밀려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민아.

힘에 부친 민아를 남자 군인들이 거칠게 밀치며 나간다.

- 섬뜩하게 만들어진 R47 모형을 향해 사격훈련을 하는 군인들,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다.

반면 R47 머리에 총구멍이 연달아 뚫리고, 적개심에 불탄 채 총을 쏘는 살기 어린 민아다.

흐르는 물에 씻겨줘 내려가는 붉은 피.

민아, 뿌여진 거울을 또 다시 닦아내면..,

-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도시를 탈출하느라 정신없다.

노란색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는 소녀 민아,

통화가 안 되자 누구를 기다리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그때, 쿵! 쿵!! 쿵!!!’지축을 울리며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

그 소리에 놀라 도망가던 사람들, ‘드르륵!!’ 이내 피를 흘리며 쓰러진다.

곧, 은빛 티타늄 바디에 붉은 눈을 좌우로 번뜩이며 나타나는 R47 군단.

병균을 박멸하듯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이겨버리고,

그 참혹한 살육 광경에 넋이 나간 민아.

노란 핸드폰을 든 민아를 노리며 다가오던 R47, 그냥 지나친다.

민아 핸드폰에 달리 R47과 유사한 로봇 인형이 장난스럽게 흔들거린다.

쏟아지는 샤워 줄기에 고개 숙인 민아,

일그러진 민아 얼굴이 거울에 비친다.

- 비 내리는 묘지공원.

로봇 인형을 들고 뛰어다니는 어린 민아.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땅 속 관에다 하얀 꽃을 던진다.

민아 엄마 사진이 비에 젖은 채 놓여 있고,

입술을 굳게 다문 안경 쓴 민아 아버지가 민아에게 꽃을 내민다.

어린 민아는 엄마 관 위에다 장난치듯 하얀 꽃을 던지며 까르르 웃고..

그런 민아를 바라보던 아버지 안경에 빗물이 눈물처럼 맺힌다.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거울을 쏘아보는 민아.

거울 속 민아 아버지가 흐려지자 주먹으로 거울을 부셔버린다.

부서진 거울 조각 안에 굴절된 민아 아버지의 잔상들!!

1. UNF 거리 - 오후

먹을거리가 든 봉지를 양손에 들고 걸어가는 민아.

거리에는 생기 잃은 사람들이 봉지를 든 민아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그때 달려오던 남자와 부딪치는 민아. 화들짝 놀라 달아나는데,

순간, ‘탕!’ 소리와 함께 도망치던 남자가 길가에 풀썩 쓰러진다.

곧, 검은 선글라스를 낀 정보사 친위대들이 남자 주위로 몰려들고, 총에 맞아 신음하는 남자.

무표정한 친위1, 사진을 꺼내 쓰러진 남자 얼굴과 대조한다.

친위1 구부한!!

남자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진다) ..

친위1 맞지? 구부한 일병 ?

남자1 니미..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뒈지는 건 똑같아. .. 해 볼 테면 해봐!!

친위1 (서류 꺼내며) UNF 군법 13조에 의거해 탈영병은 현장에서 즉결 처분한다.

쓰러진 남자, 마지막임을 안 듯 성호를 그어 기도 하는데,

**‘탕!!’**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총에 맞아 꼬꾸라지는 남자.

**‘탕!!’** 친위1, 쓰러진 남자 머리에 확인 사살을 한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친위대 시선을 피하기 급급한 사람들.

친위1, 옆에 있던 민아와 눈이 마주치자 다가간다.

친위1 신분증 제시해!!

민아 (무표정하게 쳐다본다) ..

친위1 (총 겨누며) 정보사 지시에 불응하면 현장 처분한다.

그때 친위2, 친위1에게 귓속말을하자, 멈칫거리더니 현장에서 거둘러 사라지는 친위대들.

즉결 처분당한 탈영병을 뒤져 물건을 가져가느라 몰려든 사람들이 아귀 다툼을 벌리고.

그런 광경을 무표정하게 보던 민아, 가던 길을 걸어간다.

1. 고아원 - 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저녁을 먹고 있다.

허멀 건 죽을 먹는 아이들 얼굴이 어둡기만 하다.

그때 인상 짓궂은 덩치 큰 아이가 옆 작은 아이의 저녁을 빼앗고,

아무 말 못한 채 울먹이는 작은 아이.

덩치 아이, 뺏은 저녁을 입에 넣는데,

순간, 덩치 아이 뒤통수를 때리는 주먹.

덩치 누구야?! 주글라고!!

고개 돌리면, 주먹 들고 험악하게 인상 쓰는 민아와 인자하게 웃는 여원장(62).

인상 쓰던 덩치 아이. 급미소를 짓더니 뺏은 저녁을 작은 아이에게 슬그머니 돌려준다.

양손에 든 음식을 테이블에 펼치는 민아, **‘와아~~’** 소리치며 몰려드는 어린 아이들.

1. 고아원 - 새벽

선물을 두 손에 꼭 쥔 채 잠들어 있는 아이들.

여원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잔을 민아에게 건낸다.

여원장 배급되던 식량이 또 줄었거든. 매번 자네가 고생이야.

민아 저야 제 한 몸 챙기면 되는 걸요.

여원장 (차를 마시며) 낮에 정보사가 다녀갔어.

민아 아직까지 괴롭히나요?

여원장 (씁쓸하게 웃으며) 인과응보 아니겠나.. (자기 손을 보며) 이 손으로 그 살인귀들을

만들었니까. 매일 밤 꿈속에서 날 부르는 소릴 들으며 오늘도 구차하게 살아남았다네.

민아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여원장을 바라본다)

여원장 모두가 전투 로봇 개발에 눈 감았을 때.., 자네 아버지만큼은 끝까지 반대 하셨네.

민아 (씁쓸히 웃고 일어나며) 그렇다고.., 그 책임이 가벼워지진 않겠죠.

양손에 선물을 꼭 쥔 채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던 민아,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나간다.

1. 부대 식당 - 오전

식사 시간이라 부대원들이 테이블에 빽빽하게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배식을 탄 신병, 민아와 팀원들이 있는 널널한 테이블로 가려고 한다.

그때 신병 팔을 잡아끌고 자기 쪽에 앉히는 고참. 다른 부대원들도 민아 팀을 피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민아와 배당금 봉투를 받고 싱글벙글 이반, 표정이 어두운 신지.

페이는 배당금 봉투를 들고 연신 맥주를 들이킨다.

페이 캬!! 이 맛에 산다니까~ (배당금 봉투를 흔들며) 다들 뭐 할 거야?

살아 돌아온 덕분에 1년 치 봉급을 한방에 땡겼는데.

이반 아빠가 곧 될 테니까.. 집부터 사야 되지 않을까?

페이 난 고향. 남자 친구랑 다시 시작해보려고.

이반 또 연락해? 도대체 몇 번을 헤어지고 만나는 거야?

민아 칭타오로 돌아갈 거야?

페이 (맥주 마시며) 다음 번 출전하면 못 돌아올 것 같거든요.

이반 약해졌구나. 페이~

페이 운 좋은 것도 한 두번이지. 매번 살아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신지 그거 알아요? 우릴 보고 수근되는 거?

민지 (웃는다)

신지 배팅액도 커졌고, 윗선까지 알려지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데..,

이반 소심하긴~ 누가 쪽바리..., (신지 째려보자) 재팬 출신 아니랄까봐 그러냐?

신지 (째려보며) 무리하지 말잔 얘기죠. 상남자 코스프레 보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반 상남자 코스프레?! 이거 명백한 국가 차별 발언이야!!

신지 중사님이 먼저 쪽바리..,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이반 이 자식이 진짜..

페이 또 국가 타령이야? 깡통들에게 다 뺏긴 처지에 무슨.. 구려. 아주 구려.

.. 대장은 어떻게 할 건데요? 고아원에 또 전부 몰빵?

말없이 밥을 먹는 민아.

페이, 머쓱한 지 어깨 으쓱하더니 술병을 들이키다가 민아에게 눈짓 한다.

돌아보면, 정보사 친위대가 다가온다.

얼른 배당금 봉투를 치우는 페이, 신지, 이반.

이반은 급하게 숨기려다 돈봉투를 떨어트려 돈이 쏟아지고,

친위2 (돈봉투를 보더니 민아에게 다가간다) 조민아 대위님?

무표정한 민아, 남은 밥을 입에 다 넣고 일어난다.

1. UNF 사령부. 오후

한적한 복도를 걸어가는 민아와 친위대들.

몇 개의 문을 지나 커다란 문 앞에 도착한다.

친위대는 민아에게 옷을 단정히 하라며 손짓을 하고...,

거울 앞에서 군복을 만지작거리던 민아, 그런 처지가 맘에 안 드는 지 그냥 들어가 버린다.

1. SS 정보사령관실. 오후

SS와 수뇌부1이 스테이크와 와인을 마시며 식사 중이다.

최고 수뇌부들이 보이자 멈칫하는 민아, 하지만 이내 의례적인 경례를 한다.

수뇌부1 (일어나며) 오늘에야 핫이슈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군.

(악수를 하며) 요즘 모였다 하면 자네들 얘기뿐이야~

민아 (애써 웃는다)

수뇌부1 난 참모장이고. .. (SS를 보며) 이 분은 정보 사령관님~~

수뇌부1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계속 식사를 하는 SS.

수뇌부1 자~~ 식사나 같이 하지. 자네 무용담도 들을 겸 말이야~

민아 (SS 시선을 피하려고 대각선 방향에 앉는다)

수뇌부1 (와인을 따라주며) 이번에도 활약이 대단했다던데.., 이렇게 멀짱하기만 하고..,

혹시 자네.. 무슨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

민아 (애써 웃는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술을 마시며) 와인이 훌륭하군요.

SS (핏물이 베인 고기를 썰며) 이번 생존율이 얼마였지? .. 6.4%??

민아 (술이 목에 탁 걸린다)

수뇌부1 (시가에 불을 붙이며) 아아.. 그렇다고 너무 긴장 마.

전투를 무슨 사명감으로만 할 수 있나?

다만.., 자네들 판이 커져버린 게 문제지. 선을 넘었단 말이야~

(웃으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민아 네에..., (입맛이 싹 가시지만 웃는다) 하실 말씀 하시죠.

수뇌부1 (민아의 당찬 행동에 멈칫)

SS (처음으로 민아를 쳐다보며) 듣던 대로 시원시원해서 좋군.

민아 (이번엔 SS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SS .. 오늘 깡통으로부터 재밌는 전송문을 하나 받았어.

민아 ??

SS (핏물이 베인 고기를 썰며) 휴전을 제의해왔거든~~

민아 휴전이라면??? .. 그럼 전쟁이... 끝나는 건가요?

SS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무참하게 죽인 놈들이잖나.

민아 .. 그럼??

SS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입에 넣고 씹으며) 팀과 함께 ‘시티’로 들어가게.

민아 시티로요??!!! .. 하하~~ 농담이 심하시네요.

SS (무표정하게 바라본다)

민아 (얼굴 굳어지며) 지금 제 처지가 이런 말 상황이 아니지만..,

저희 팀은 강하습격 팀이라 특수전은 무립니다. 게다가 시티는 놈들의 점령지로..,

SS 물론, 강요는 않네. .. 선택은 자네가 하게.

민아 (빌어먹을! 빌어먹을!!)

수뇌부1 혹시 아나? 자네 말처럼 또 운이 좋아 이번 일을 말끔히 완수해 낼지?

민아 (수뇌부1과 SS를 쳐다본다)

SS 임무를 마치면 도박 건은 물론이고, 대원들이 원하는 걸 UNF가 책임져준다.

당연히.., 자네가 궁금해 하는 자네 아버지 소식까지도 말이야.

‘아버지’라는 말에 눈이 움찔하는 민아.

SS는 남은 식사를 계속하고.., 수뇌부1은 시가를 문 채 민아를 보며 웃는다.

입술을 굳게 다문 민아, 앞에 있는 값 비싼 와인을 한 번에 다 마셔버린다.

1. 엘리베이터. 오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검은 사제복을 입은 비셔스.

빗방울로 흐려진 창 밖 고층빌딩 숲들을 보며 빙그레 웃는다.

1. 공중정원. 오후

화사한 꽃들과 나무들 사이로 나비들이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잘 가꾸어진 공중정원.

앞치마를 두른 정원사가 시든 나무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있다.

그 옆 테이블에는 제복을 입은 무표정한 사령관과 살집 많은 안경 낀 교수가 앉아있고..,

맞은편에는 야생복을 입은 사냥꾼과 비셔스가 앉아있다.

사냥꾼 마마도 참~ 뭐 하러 그렇게 힘들게 해요? 몸도 안 좋다면서~~

(교수를 툭 치며) 다이어트도 할 겸 힘 좀 써보시지??

교수 힘 써는 건 머리 단단한 네 즐거움이잖아~~

사냥꾼 가뜩이나 겁먹은 녀석들 설득시키는 게..,

얼마나 머리 뽀개지는 일인 줄 모르나 본데~~

교수 그래도 지구를 통째로 스캔 시키는 것에 비하면 얘들 장난이지~~

근데 녀석들이랑 무슨 애길 하냐? 말이 통하긴 하냐??

사냥꾼 잘난 체 하는 너보단 훨씬 더 낫지~~ 암~~

마마는 그 많던 작업들을 다 끝마쳤다면서요?

정원사 (빙그레 웃는다)

비셔스 현존하는 355,234개의 식물들과 변종된 2965개가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죠.

사냥꾼 일주일 뒤면 여기도 끝이구나~~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냐~~

사냥꾼의 말에 표정들이 다들 제각각이다.

사령관 (일어나며) 더 이상 결정할 건이 없다면.., 먼저 가야겠어.

교수 (따라 일어나며) 나도~~ 아직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거든~~

정원사 (웃으며) 마무리 잘하고~~ 다들 몸조심해~~

사냥꾼 (안으며) 마마나 몸 좀 살펴가면서 일해요. 알죠? 대충~ 대충~~

정원사에게 인사를 한 뒤 사라지는 사냥꾼, 교수, 사령관, 비셔스.

정원사는 손때 묻은 정원을 둘러보더니, 얼굴에 아쉬움과 쓸쓸함이 잔득 묻어난다.

1. 공중정원 빌딩 앞. 오후

공중정원 빌딩에서 나오는 비셔스, 사령관, 교수, 사냥꾼.

비셔스 (미소) 이번 결정, 아직도 회의적이신가요?

사령관 (무표정한 얼굴) 결정난 걸 고민하는 건.., 어리석은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지.

교수 (분위기 어색해지자) 비셔스~~ 전에 준 그 책 말이야?? 그 뒤편은 아직이야?

사냥꾼 아직 못 찾았다며??

비셔스 곧.., 좋은 소식이 갈 겁니다~~

교수 약속 한 거야~ 그럼.. 담에 보자고..,

사냥꾼 몸조심해~ 너 보기보단 은근히 약골이잖냐~ ㅋㅋ~

교수 너나 조심해. 또 코나 물려 날 뛰지 말고.., ㅋㅋ~~

비셔스 (웃으며) 그럼.., 그 날 뵙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사령관은 비셔스를 힐긋 쏘아보더니 말없이 돌아선다.

그런 상황에 익숙한 지 어깨를 으쓱한 뒤 헤어지는 사냥꾼과 교수.

비셔스는 비가 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는다.

그 뒤로 하늘을 향해 만들어지고 있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발사체!!.

1. 산 길. 새벽

가파른 산길을 행군하는 민아와 팀원들.

신지 헉헉~~ 독사 같은 정보사가 쉽게 풀어줄 리가 없는데..,

이반 지들도 베팅 판에 끼고 싶었나보지~~ 헥헥~~

신지 그 동안 정보사 허락 없이 도박판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덮치지를 않나? 그냥 풀어주질 않나? .. 분명.., 냄새가 나요.

페이 냄새나면?? 감옥에 다시 갈래? 난 안 가~~못 가!! *Never!!!~~*

신지 아니.. 뭘 하는 건지, 타켓이 뭔 줄도 모르는데.., 무슨 임무가 이래요??

이반 헥헥~~ 아이고 힘들어~ 죽겄네~~ 대장~~ 이대로 확 튀어 버릴까요?

민아 자료를 전해줄 친구가 올 거야.

페이 (갸웃) 그럼.., 우리가 찾아가는 친군 누군가요?

입술을 굳게 다문 민아, 대꾸 없이 빠르게 수풀을 헤쳐 나간다.

1. 감옥 복도. 아침

육중한 철제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기름기 번들거리는 교도소장이 민아와 팀원을 안내하며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고 있다.

소장 별 일도 다 있군. 여긴 들어오면 살아선 못 나가는 곳이거든~~

민아 7444번... 어떤 놈이죠?

소장 우리도 몰라~ 관심도 없고.., 다만 소문은 무성하지~~

페이 소문??

소장 (씨익) 무지 무지 하드고어 해~~

자고 있던 부하들을 지손으로 몽땅 쳐 죽이고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고..,

지휘관 머리를 손으로 확 뽑아버렸다는 말도 있고.., 암튼 괴물 같은 놈이야.

지금까지 독방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반 5년 동안요??

페이 (호기심 발동) *cooool~~*

소장의 말에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민아.

철제문이 열리면.., 깜빡거리는 형광등이 음산해 보이는 칙칙한 복도가 보인다.

1. 면회실. 낮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하얀색으로 칠해진 텅 빈 면회실.

민아와 팀원들 얼굴에는 의외라는 표정이 역력하다.

맞은 편에는 그 동안의 독방생활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없이 느슨해 보이는 7444번.

7444번 (하품을 크게 하며 기지개를 켠다) 아함~~ 싫은데~~

이반/팀원들 엥??!!

7444번 귀찮아~~ 이곳 정도 들었고~~

민아 (웃는다)

페이 (호감 상승) 멋져~ 멋져~

이반 (페이에게 인상 쓰며) 독방에서 오래 썩다보니 머리에 곰팡이가 핀 거 같은데..,

이번 기회 아니면 햇빛 볼 줄 알아??

7444번 (또 다시 하품) 심심한가봐~ 내 걱정도 다 해주고.., 아는 사인가??

이반 이 자식이 증말~~

민아 (차가운 미소) 좋아. .. 원하는 것 말해.

7444번 (그제야 환하게 웃더니 민아 앞에 바짝 들이댄다)

자본주의자들이랑 여자는 이래서 맘에 들어. 계산이 빠르거든~~

민아 (웃는다)

7444번 으음... 분명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면 쉬운 일은 아닐 테고..,

민아 그러겠지..,

7444번 당연히 목숨은 걸어야 될 테고?

민아 아마도..,

7444번 (웃으며) 그 봐~~ 내가 손해잖아~~ 안 해~ 안 해~~

이반 일 끝나면 나가는 건 물론이고 원하는 것까지 다 들어준다니까!! 이 자식아~~

7444번 (솔깃) 그래?? 으음.. 찾을 사람이 있긴 하거든~~

페이 여자야? 당신.. 결혼했어??

이반 (짜증) 페이~~ 넌 좀 제발 빠져~~

민아 (사령부 직인이 찍힌 서류를 내밀며) 여기 사인해.

일 끝나면 사면과 함께 그 여자를 찾아주지.

7444번 에이~~ 그딴 종이쪼가리를 믿으라고??!!

민아 (웃으며) 그럼??

7444번 (더 바짝 들이대고 웃으며) 책임져~~

민아 뭘???

7444번 뭐긴? 바로 나지~~ (수갑 찬 손으로 민아를 가리키며) 맘에 들었거든~~

장난스럽게 웃는 7444번을 쳐다보는 민아.

신지는 7444번이 신기한지 갸웃거리고, 페이는 호감 급상승 중!!

이반 (책상을 탕 두드리고 일어나며) 이런 허당 새끼가 다 있나~~

대장~ 이딴 놈은 제가 속속들이 잘 알거든요.

말만 뻔지르하고.., 늘 잔머리에, 입만 열었다하면 제다 뻥~입니다!!

7444번 자신 없음 말고~~

민아 (7444번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웃는다 ) 좋아. 소원대로 해주지.

평생 골방에서 죽을 때까지 푹 썩어봐~~

소장 뭐야? 7444번 안 나가? 에이씨,, 정보사령관 각하께 뭐라 그래??

웃는 7444번, 갑자기 왼쪽 팔이 움찔거린다.

민아를 보며 왼쪽 손가락 3개를 치켜드는 7444번, 손가락이 2개로 바뀐다.

지석에게 손가락 하나를 치켜세우며 일어나는 싸늘한 민아.

그때, 책상 위에 있던 유리잔 속 물결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민아의 눈가가 꿈틀되고.., 동시에 7444번의 손가락이 하나로 바뀐다.

이번엔 좀 더 커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더 흔들리는 유리잔 속 물결.

서로 시선을 마주치는 민아와 팀원들.

동시에 7444번은 수갑 찬 손으로 머리를 감싸더니 바짝 엎드린다.

‘뭐야??’ 황당해 하는 소장은 경비병에게 데리고 가라며 손짓하고..,

순간, ‘숙여!!’ 민아의 외침과 동시에..,

‘펑!!’ 하는 폭발음이 들리더니 한 쪽 벽이 무너져 내린다.

뿌연 먼지와 함께 여기저기서 켁켁되는 신음 소리들, 한 쪽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민아는 주위를 살피다 쓰러진 경비병한테서 수갑 열쇠를 꺼내는 7444번과 시선이 마주치고..,

먼저 가겠다며 손 인사를 한 뒤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넉살좋은 7444번.

민아 (총탄을 장전하며) 이반?

이반 (옷을 털어내며) 이상 없슴다~

민아 페이? 신지??

페이/신지 (총탄을 장전한다) !!

소장 뭐야? 무슨 일이야?

(무전기에다) 상황실! 상황실!! 왜 무전기는 안 터지고 지랄이야?

민아 놈들에게 이미 장악되었을 겁니다.

소장 놈들이라니?? 지금 무슨 소리야?? (겁먹은 경비병에게 뚫린 구멍을 가리키며)

야!! 너 저 안에 들어가 봐~~ .. 빨리~ 안 움직여!!

소장은 경비병에게 구멍을 살펴보라며 계속 손짓하고..,

겁먹은 얼굴로 구멍 안을 살피던 경비병, 순간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더니 끔찍한 비명이 들려온다.

민아의 수신호에 공격에 대비하는 팀원들.

하지만 소장은 무전기를 들고 패닉 상태다.

소장 상황실!! 상황실!!! .. 나 소장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새끼들 무전도 안 받고.., 지금 뭐하는 거야? .. 다들 죽었어!!

소릴 지르다 구멍 속에서 번득이는 붉은 눈과 시선이 마주치는 소장.

겁에 질린 채 무턱대고 권총을 쏘는데..,

순간 한걸음에 점프해 소장 앞에 착지하는 R47,

얼어붙은 소장 머리를 움켜쥐며 위로 들어 올리는데..., ‘우지찍’ 부서지는 소장 머리.

허공에서 바둥거리는 소장을 보며 얼어버린 경비병들.

R47들은 먹이를 노리듯 경비병들에게 달려들어 으깨어버리고..,

그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던 민아, 팀원들에게 면회실을 빠져나가라며 수신호로 지시한다.

민아의 냉혹한 지시에 망설이던 팀원들, 곧.., 민아를 뒤 따른다.

1. 숲 속. 낮

날쌘 늑대처럼 재빠르게 산을 내려가는 7444번.

오랜 감옥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에 전혀 망설임이 없다.

개울을 건너려던 7444번, 씨익 웃더니 담배를 꺼내 여유롭게 불을 붙인다.

곧, 주위 수풀들이 흔들리며 7444번을 에워쌓은 빠른 움직임들.

모습을 드러내는데.., 총구를 겨눈 민아와 팀원들이다.

7444번 (담배 들여 마시며) 허당들은 아닌데~~

이반 (다가가다 눈이 확 커진다.) 다들 정지! 뒤로 물러서!!

민아/팀원들 ???

이반 저 새끼.. 이제야 생각났어!!

7444번 쑥스럽게 왜 이래~ 다 지나간 일 가지고~~

신지 아는 사람???

이반 자원 전쟁 때 우리 쪽 고위 인사를 암살하던 북쪽 특수전 대가리야.

신지 북쪽이라면.. 중사님이 이를 갈던 그 사신이라는 놈요??

페이 (급호감~~) *cooooool~~~!!*

7444번 (미소) 소개가 늦었군. 난 북조선 정찰국 소속 고지석 소좌.

이젠 인류 통합정부라.., 나라 이름 따윈 무의미한가? 하하하~~

이반 웃는 것에 속지 마요. 저 새끼한테 당한 동료들만 수십 명입니다.

지석 (웃으며) 미안~ 미안~~

지석의 너스레에 얼굴이 확 달아오른 이반, 총으로 후려친다.

비틀하던 지석, 이반 재차 총으로 내리치는데..,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반의 총을 뺏어버리는 지석.

민아와 팀원들이 재빠르게 총을 겨누고...,

지석 (웃으며)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 있을까?

이반 대장~~ 그냥 쏴버려요!!

페이 릴랙스~~ 릴랙스~~

신지 대장??!!

민아 (총을 겨누며) 너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지석 (웃는다)

민아 함께 하던지..,, 끝장을 보던지~~

지석 역시 터프해~~ 근데.. 어쩌나?? 난 여린 여자가 더 좋은데~~

민아 (차갑게 웃는다)

이반 그냥 쏴 버리라니까!! 저 새끼.. 지손으로 부하 죽인 미치광이라잖아!!

순간, 지석 얼굴에 섬뜩함이 스치더니 총구에서 불이 뿜는다.

‘타탕!!’ 난데없는 총격에 얼어버린 이반과 팀원들.

민아는 어느새 지석 머리에 총을 겨누고..,

하지만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는 지석.

그 순간, 총알이 날아간 방향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온다.

웃고 있는 지석을 노려보는 민아. (CUT T0)

- 팔에 상처를 입고 치료받는 소심해 보이는 광대.

민아가 다가오자 페이는 광대가 가지고 있던 서류 봉투를 건네준다.

봉투를 열면.., 선명하게 찍힌 황금색 UNF 정보사령부 직인!!

그 서류를 확인하던 민아 눈이 점점 커지는데...,

1. 나무 밑. 낮

이반 ‘시티’라구요??!!! .. 깡통 새끼들이 우글거리는 거길 왜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는 이반, 페이, 신지.

그 옆에는 지석이가 흥미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민아 (서류를 챙기며) ‘시티’ 최종결정기구인 5인회를 사냥하고,

놈들 칩으로 시티 심장부인 컨트롤 타워로 없앤다.

페이 该死~~( 빌어먹을)~~ 좃됐다~~

신지 그봐요~ 냄새 난다 했잖아요~~

민아 (짐을 챙기며 출발 준비를 한다)

이반 (얼굴 이글어지며) 좋아요. .. 그럼 ‘시티’는 어떻게 들어갈 건데요?

UNF 보호구역에서 벗어나는 순간 미사일 공격으로 ‘껙’이잖아요!!

민아 (지석을 힐끗 쳐다보며) 믿기진 않지만.., 이전에 시티에서 작전 경험이 있다는군.

지석 (한 쪽 손 올리며 방긋)

페이 (급호감) *So cooool~~*

이반 (얼굴 이글어진다) 저 새끼 저걸~~ ..

좋습니다. 좋다구요. 운 좋게 시티로 들어갔다고 쳐요.

우릴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수많은 깡통 새끼들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광대 (배시시 웃으며) 그건 걱정 안해도 되요~~

팀원들 (광대를 쳐다본다)

광대 깡통들이 전투형 R47과 인간형 안드로이드, 두 부류인건 아시죠??

안드로이드에겐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칩이 들어 있는데..,

(으시대며 칩을 보여준다) 이놈이 바로 그 칩이죠.

이걸 몸에다 삽입하면.., 그 놈들도 깜빡 속는 거죠.

신지 (칩을 만지며 갸웃 거린다) 쪼또마떼~~

본체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산화되는 걸로 아는데..,

광대 에휴~~ 말도 마요. 이걸 빼내느라 얼마나 빼기쳤다구요~~

이반 (점점 울상)

민아 임무를 완수하면 도박 껀은 물론이고.., 각자 원하는 것을 UNF가 책임져준다

팀원들 (서로 눈치 본다)

민아 (떠날 준비를 마쳤다) 포기 할 사람은 지금 해. .. 이해하니까..,

페이와 신지는 난감한 얼굴로 서로 쳐다보더니.., 결국 민아에게 손을 내민다.

칩을 건네주는 민아, 지석에게도 칼 집 하나와 칩을 던져주는데..,

가방과 칩을 든 채 웃는 지석.

그런 지석을 보며 불만에 가득 찬 이반, 점점 얼굴이 이글어진다.

이반 그딴 기계를 내 몸에 넣으라고요?? 말도 안 돼~~

죽었으면 죽었지 못 해!! ... 못한다니깐!!!!!!

1. 거친 모래길. 오후

‘못 해~~ 절대로 못해~~’

탈진한 목소리로 투덜거리며 걸어가는 이반.

그 앞에는 햇빛과 거친 바람을 뚫고 걸어가는 민아 일행과 선두에 선 지석.

신지 근데.., 왜 우리죠? 특수전은 정보사 담당이잖아요.

페이 우리 팀이 운이 좀 좋냐~~ ㅋㅋ

이반 (헥헥) 지금 웃음이 나와??

대장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게 ~~

민아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해야 돼.

지석 (헉헉되는 이반을 보며) 저 친구 때문에 가능할까??

이반 이 새끼가 증말~~ (짐을 벗으며 지석에게 다가간다)

좋아. 지금 끝장을 보자고~~ 일루와! .. 안 와!

지석 (무시하고 휙 지나 가버린다)

페이 (그런 지석을 보고 방긋 웃으며 뒤 따라간다)

이반 (뻘쭘~~) 새끼~~ 비겁하게~~ 거기 서!! 안 서!!!!!

짐을 챙겨 지석과 민아 일행을 뒤따라가느라 헥헥되는 이반.

뜨거운 태양 아래 민아와 지석, 팀원들이 거친 땅을 빠르게 횡단한다.

1. SS 사령관실. 오후

눈을 감은 채 진공관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음악을 듣고 있는 SS.

수뇌부1은 입에 캐비어를 잔득 넣은 채 불만스런 표정으로 와인을 마시고 있다.

수뇌부1 괜찮을까?

SS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듣는다)

수뇌부 아무리 그래도 지석이 그 놈까지 꺼낸 건 영 찝찝해~~

SS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음악만 듣는다)

수뇌부1 (눈치 살피다 와인을 마시며) 하긴~ 자네가 언제 틀린 적이 있나?

.. 그거 아나? .. 다들 배급제라 난리잖아~

그런데 자네가 챙겨주는 물건들은 점점 더 좋아진다며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해~

세상 참 단순하지~~ 하하하~~

입 주변에 흘러내린 캐비어를 꾸역꾸역 집어넣으며 고급 와인을 마시는 수뇌부1.

SS는 신경 안 쓴다는 듯 눈을 감은 채 진공관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는다.

1. 벌판. 오후

태양이 작렬하는 벌판 위에서 긴장된 눈빛으로 앞을 바라보는 민아와 팀원들.

그 앞에는 낡은 트럭 위에 지석이가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

벌판 위에는 여기 저기 폭격을 맞고 부서진 흔적들.

신지 놈들이 위성으로 모니터 할 텐데.., 괜찮을까요?

이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저딴 고물딱지로 지나갔다는 게 말이 돼??

괜히 뻥치는 거라니깐.., 한 시간 째 저러고 있잖아!!

페이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지석 보며) 멋져~ 멋져~~

이반 너.. 남자친구랑 다시 시작할거라며!!

페이 사람 목숨 알 수 있나요?? 현실에 충실 해야죠~~ (지석 보며) 그림 좋다~~

민아 (시계를 확인하더니) 더 이상 시간 없어. 이반!! 다른 루트를 찾는다.

이반 그봐요~~ 저 새끼 땜에 괜히 시간만 낭비 했잖아요~

페이 (얼굴 환해지며) 대장~~

보면.., 낡은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지석.

민아와 팀원들은 출발하는 트럭에 간신히 몸을 싣는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UNF 보호구역을 지나가는 낡은 트럭.

팀원들은 별다른 일이 없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때 저 멀리 앞 쪽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날아오는 무언가!!

**“ RPG!!!!! "**

경고를 알리는 페이의 다급한 외침!!

동시에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엑설레이터를 한껏 더 밟는 지석.

그때 다른 쪽에서 하얀 연기를 내며 날아오는 또 다른 미사일!!

팀원들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진다.

하지만 지석은 씨익 웃더니 핸들을 휙 꺾는데..,

이리 저리 방향을 바꾸며 벌판을 질주하는 트럭!!

곧.., 여러 방향에서 날아드는 미사일들이 한 방향으로 모이더니 트럭을 뒤쫓고..,

민아가 눈짓하자 달리던 트럭 뒤로 검은 가방을 던지는 이반.

굉음을 내며 달리는 낡은 트럭!! 그 뒤를 바짝 뒤쫓는 미사일들!!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그때 달려가던 트럭이 90도 회전을 하더니 급정거를 한다.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맹렬한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들!!

민아를 보며 씨익 웃는 지석.

민아 페이!!!!

그 말과 동시에 저격 소총에 달린 스코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노리는 페이!!

망원 스코프를 아래로 숙이자 이반이 던져둔 검은 가방이 보인다.

민아 충격에 대비해!!

순간.., ‘탕!’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가방에서 시뻘건 불구덩이가 치솟고..,

맹렬한 속도로 날아오던 미사일들은 그 시뻘건 불구덩이를 향해 그대로 돌진한다.

곧.., 지축을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주변이 검은 연기로 가려지고..,

다른 미사일들도 불구덩이 속으로 차례차례 돌진한다.

-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폭발 현장이 점점 줌 아웃되는 모니터 화면!

주위에 있던 여러 모니터들도 연기에 가려진 부근을 여러 각도에서 비춰진다.

1. 교회. 오후

천상의 노래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교회 안.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비셔스.

스테인그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빛이 비셔스를 감싼다.

1. 황무지. 오후

거친 땅위를 달리고 있는 코뿔소.

그 뒤로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하는 짚 차, 사냥꾼이 코뿔소를 뒤 쫓고 있다.

코뿔소와 거리가 좁혀지지 않자 한 숨을 내쉬던 사냥꾼,

달리던 자동차에서 휘익 내리더니,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한다.

짚 차 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냥꾼.

코뿔소와 거리가 점점 좁혀지더니.., 나란히 달린다.

코뿔소에게 뭐라 고함을 지르는 사냥꾼,

정신없이 달리던 코뿔소는 놀랍게도 그 소리에 서서히 발걸음을 멈추고..,

씩씩거리는 코뿔소에게 다가간 사냥꾼,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를 이야기한다.

곧.., 코뿔소를 수송하기 위한 트럭이 다가오고..,

1. 언덕 위. 오후

코뿔소와 사냥꾼을 지켜보는 망원경 시선.

언덕 위에서 민아 일행이 위장을 한 채 사냥꾼 주변을 살피고 있다.

이반 (갸웃) 도대체.., 저 둘이 뭐하는 것 같냐?

페이 보고도 몰라요? .. 얘기하잖아요.

이반 야~~ 코뿔소랑 깡통이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말 좀 되는 소리를 해라.

지석 일명 사냥꾼~~

‘시티’를 움직이는 5인회로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하이엔드 로봇이야

이반 (뜨악하더니 망원경으로 다시 본다)

지석 놈은 10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냄새와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해.

멸종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화 되었거든.

이반 그 딴 놈이 저 딴 포획질을 해??!! 나쁜 시끼들~~

신지 (트럭 안에 가득 실린 동물들을 보며) 저 녀석들로 뭘 하려는 걸까요?

이반 (힐긋 째려보며) 궁금한 것도 많아~~

대장!!~~ 볼 것도 없슴다~~ 폭탄으로 날려버리죠!!

민아 (망원경으로 주위를 살피며) 칩 확보가 우선이야.

이반 예?? 저 딴 놈을 생포하게요??!! (울상이다) 가까이 가기도 힘들겠구만..,

그때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지석이가 피식피식 웃는다.

민아가 망원경으로 보자...,

동물과 뒤엉켜 땅에 뒹굴고 있는 사냥꾼.

민아는 지석과 시선이 마주치더니 다시 사냥꾼을 살핀다.

동물들과 장난치는 사냥꾼의 얼굴이 어린 아이처럼 해 맑아 보인다.

1. 벌판. 새벽

별들이 가득한 조용한 벌판 위에 모닥불이 타고 있다.

눈을 감은 사냥꾼,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가 꿈틀거리더니 눈을 확 뜬다.

1. 벌판. 아침

다급하게 달려가는 발걸음.

사냥꾼 귀에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온다.

달려가던 발걸음이 멈추면..,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어린 동물.

눈물이 그렁 맺히는 사냥꾼, 기이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다가간다.

발광하던 어린 동물은 그 소리에 길게 울음소리를 토해내는데..,

조심스럽게 덫을 해체하고 상처 부위를 살피는 사냥꾼, 순간 눈빛이 번득인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땅 밑에서 뭔가가 튀어 오르더니 공중에서 폭발하고,

사냥꾼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부비트랩!!.

곧.., 위장한 민아와 이반, 신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반 새끼~~ 하이엔드 좋아하시네~~ 별 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신지 중사님 숨넘어가는 소리 땜에 하마터면 들킬 뻔 했잖아요~

이반 얘는 무슨 소릴~~ 저 딴 새낀 한 방 꺼린데~~

민아 타켓을 확인해! 칩을 수거하고 바로 여길 뜬다.

이반 (쌓여있는 나무 더미를 보며) 에휴.. 저걸 어느 세월에 다 치워~~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자식도 데리고 오는 건데.., 쩝~~

사냥꾼이 묻힌 나무 더미로 다가가는 민아와 팀원들.

그런데.., 나무 더미가 움찔거리더니 사방으로 확 튄다.

돌발 상황에 총을 겨누는 민아와 이반, 신지.

순간, 한걸음에 달려와 민아와 이반, 신지를 쓰러트리는 엄청난 스피드인 사냥꾼.

민아와 팀원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총까지 뺏긴 채 나가떨어진다.

사냥꾼 (쏘아보다 웃는다) 푸하하~~ 동물 냄새에.., 칩까지 넣은 인간이라니..,

유머가 꽝이군~~

이반/신지 (사냥꾼의 스피드에 놀라 얼굴 찡그리며) 대장??!!

민아 (기회를 엿보며 칼을 꺼낸다)

사냥꾼 (피식) 날 노리려고 이 난리를 피웠나?

얘기하지? 녀셕 대신 그냥 잡혀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신지 멸종 동물까지 포획한 주제에!!

사냥꾼 (어이없다는 듯) 포획이라고??!! 하하하~~

여긴 숲이었어. 니들이 쓰레기 매립지로 만들기 전까진 말이야~~

주위를 둘러봐~~ 너희들이 쏟아낸 독이 어떤지?

(웃으며) 인간들이 사라지면..., 얼마나 많은 숲들이 살아남을까?

**.. 니들이 사라지면 세상은 그만큼 더 깨끗해지겠지?**

민아/이반/신지 (눈이 꿈틀거린다)

사냥꾼 자.. 그럼 니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물어볼까?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사냥꾼.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와 이반과 신지를 노린다.

전광석화 같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반과 신지.

그때 사냥꾼 얼굴에 꽂히는 강력한 발차기.

얼굴이 이글어진 사냥꾼, 고개 돌리면 민아가 사냥꾼을 노린다. .

사냥꾼 이런~ 이런~ 여자라 방심했나??

머리를 끄적이던 사냥꾼, 순식간에 민아의 목숨을 노린다.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놈의 가슴을 파고드는 민아.

순간, ‘쨍’하며 부러지는 민아의 군용 단검!!

당황한 민아, 사냥꾼의 반격에 피를 토하며 나가떨어진다.

살기어린 사냥꾼, 몸을 솟구치더니 민아를 노리며 내리 꽂히는데..,

순간, 불꽃을 일으키며 사냥꾼의 억센 손아귀를 가로막는 칼끝이 구부러진 쿠크리 단검.

지석 (씨익 웃으며) 오랜만이야~

사냥꾼 (의외라는 듯) 오호~~ 오랜만이야~~

쿠크리 단검을 내리 누르며 민아 목을 움켜쥐는 살기어린 사냥꾼.

민아는 내려오는 칼을 피하느라 몸부림치는데.., 순간 눈이 움찔한다.

민아를 노리던 살기어린 사냥꾼 얼굴이 점점 환희로 물든다.

순간, ‘슈슉!!’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사냥꾼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지고..,

언덕 너머에서 대물 저격 총으로 사냥꾼 머리를 저격하는 페이!!

그 틈에 민아의 강력한 발이 사냥꾼 턱을 강타하고,

동시에 사냥꾼 가슴을 그대로 뚫어버리는 지석의 쿠크리 단검!!

‘허억’하며 가슴에 칼이 꽂힌 채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냥꾼.

민아, 재빨리 총을 겨눈다.

하지만.., 민아에게 떨리는 손을 내밀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냥꾼.

사냥꾼 (노이즈 목소리로) ㅍ\*..린...세~ㅅ.. 지찍~.. 지찍~.. ㅍ\*..린...세~ㅅ...

사냥꾼은 고장이 났는지 환하게 웃음 지으며 민아에게 다가가는데...,

사냥꾼의 이상한 행동에 눈이 꿈틀대는 민아.

순간, 둔탁한 총소리와 함께 사냥꾼 머리가 뒤로 확 꺾인다.

사냥꾼의 눈에서 점점 빛이 사라져가고...,

1. 공중정원. 아침

화창하게 핀 꽃들과 나무들을 손질하고 있는 정원사.

옆으로 물건을 옮기다 멈칫하는데.., 순간 화분이 땅으로 떨어진다.

고요한 정적을 깨트리는 날카로운 파열음.

얼굴이 굳은 정원사는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지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앉고..,

창 밖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정원사 얼굴엔 깊은 슬픔이 서려있다.

1. 수풀 속. 낮

총소리에 여기저기서 다급하게 몰려가는 R47들.

그 옆 수풀 속에서 일어나는 민아와 이반, 신지

이반 (상처를 만지며) 이건 아냐~ 우리가 상대할 놈들이 아냐~ 때려 죽여도 못해!!

그때 수풀 사이로 누군가가 다가오자 총을 겨누는 민아와 팀원들.

보면..., 지석과 페이가 작전 성공에 웃으며 팀에 합류한다.

다가오는 지석을 그대로 한 방 날리는 민아.

고개가 휙 돌아간 지석, 민아를 보더니 실없이 웃기만 한다.

민아 또 다시 명령 어기고 맘대로 자리 뜨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

이반은 툴툴거리던 입을 얼른 다물고,

신경질적인 민아 반응에 어리둥절해하는 페이와 신지.

민아는 수풀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는데.., 얼굴이 굳어있다.

‘사냥꾼의 웃음, 귀에 거슬리던 소리들.. 뭐지???’

하지만.., 이내 잡생각을 털어내고 수풀을 헤치며 나아가는 민아.

지석과 팀원들도 민아 뒤를 따른다.

1. 초원. 낮

고개를 숙인 채 주저앉아 있는 사냥꾼.

어린 동물이 사냥꾼을 움직여 보려고 머리를 들이대지만 꿈쩍도 않는다.

그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누군가의 발걸음.

사냥꾼 머리 뒤쪽을 만지자.., 스르르 사냥꾼 몸이 열리고..,

그 안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누군가, 호기심으로 가득 찬 SS 정보원 광대다.

1. 공중정원. 오후

깊은 침묵이 흐르는 공중정원, 사냥꾼을 제외한 4인이 모였다.

책상 위에 파란색 메모리스틱을 올려놓는 비셔스.

정원사, 사령관, 교수는 말없이 파란 메모리스틱을 바라본다.

사령관 놈들이 우리 제안을 거부했다고 봐도 좋은 건가?

비셔스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사령관 거짓말 하거나 또 우릴 속이려고 들겠지. .. 놈들 특기니까~~

교수 (메모리스틱을 보며) 쳇.. 그깟 인간들한테 당하다니.., 녀석 답지 못한 걸~

그러기에 우리도 R47처럼 데이터를 클라우딩 했어야 한다니까~~

이번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도 바로 복구할 수 있잖아.

.. 초기 명령어라 바꿀 수도 없고..,

사령관 불가능만은 않지.

교수 (놀라며) ??!!

비셔스 (빙그레 웃는다)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잔 건가요?

사령관 낡은 운명을 바꿔보자는 거지.

사제인 자네도.., 인간들의 자백을 받아내던 유능한 고문관이지 않았나??

비셔스 (여전히 웃는다)

사령관 자네 손에서 풍기던 그 역겨운 악취와 더러운 피를 그새 잊었나본데~~

사령관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 같은 미소를 짓는 비셔스.

교수는 날이 선 사령관과 웃고 있는 비셔스 사이에서 난감해한다.

정원사 (굳게 다문 입술이 열리며) 모든 건.., 운명입니다.

교수/사령관/비셔스 ...

정원사 우리들 욕심으로 운명을 함부로 재단할 순 없어요.

삶과 죽음이 결국은 자연의 한 조각이듯.., 우린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 갈 겁니다.

또한..., ‘엑서더스’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이제.., 자연의 일부가 되려고 했던 그의 바램대로.., 그를 놓아줍시다.

먼지에서 태어난 사냥꾼은.., 먼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원사가 사냥꾼의 메모리를 기계장치에 넣자..,

‘윙’하는 소리와 함께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뜬다.

기도를 하듯 눈을 감는 정원사, 긴 숨을 들이시더니 어렵게 버튼을 누른다. ,

모니터에는 유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떠오르는 사냥꾼의 생전 모습들!!

-출산을 하는 동물들을 도와주다 오물을 뒤집어쓰는 사냥꾼, 꽥꽥거리고...,

-뱀에게 장난을 치다 코가 물려 길길이 날뛰며 소리치는 사냥꾼.

-인간이 쳐 놓은 덫에 걸려 죽은 동물을 보며 울음을 참지 못하고 몸을 들썩이는 사냥꾼.

-‘긴 여행’을 준비하는 듯 동물들을 실은 컨테이너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사냥꾼.

-동물들과 뛰어 노는 사냥꾼의 해 맑은 얼굴들.

그 유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사냥꾼의 얼굴이 점점 옅어져 가는데..,

곧 모니터에는 거친 노이즈만이 흐른다.

사냥꾼을 떠나보내는 정원사, 교수, 사령관, 비셔스의 모습이 자못 비장해 보인다.

1. 공중정원 빌딩 앞. 오후

사령관과 비셔스, 교수가 어두운 얼굴로 공중정원을 내려온다.

교수 쳇~~ 마지막까지 낄낄되기나 하고.., 하여튼 싱거운 녀석이야.

.. (힐긋) 소문 들었어?

사령관 (말없이 계속 걷는다)

교수 ‘프린세스’ 말이야.

사령관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교수 운명을 바꾸는 거.., 불가능만은 아니겠더라고.., 그 소문이 맞다면 말이야~~

사령관 (발걸음을 늦춘다)

교수 (장난스럽게 웃으며) 재수씨는 잘 있지?~~ 몸조심 해~~

(R47이 다가오자) 저 덩치들. 정말 귀찮아 죽겠다니까~~

R47과 함께 웃으며 사라지는 교수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사령관.

사령관도 자동차에 올라타는데...,

비셔스 시티에 인간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네요?

사령관 요즘은 어딜 가나 소문 타령이군.

비셔스 혹시 아시는 게 있나 싶어서...,

사령관 그 바퀴벌레들을 놔두자고 한 건 신성한 자네 생각 아니었나?

비셔스 (웃으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 그 분의 뜻이기도 하지요.

사령관 자네의 그 깊고 넓은 신앙심으로도 그 놈들을 어쩌지 못한다면..,

그땐 군이 직접 개입하겠네.

해맑게 웃는 비셔스, 사령관에게 고개를 숙인다.

비셔스의 호의를 무시하며 창문을 올려버리는 사령관, 자동차가 출발한다.

사령관은 백미러 속에서 웃고 있는 비셔스를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1. 발레 연습실. 오후

전면이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어진 발레 연습실.

음악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며 발레 동작을 연습하고 있는 가냘픈 수진.

음악이 끝나자..., 동작을 멈추더니 가쁜 숨을 고른다.

테이블로 다가가 목걸이를 열더니 빙그레 웃는 수진.

목걸이 안에 있던 사진을 바라보다.., 다시 발레 동작을 연습하기 시작하는 수진.

1. 시티 관문. 오후

멀리 고층빌딩들이 숲을 이룬 ‘시티’가 보이는 시티 관문.

인간형 안드로이드들이 스캔이 설치된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고..,

그 주위를 R47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

그 너머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민아와 지석, 팀원들.

이반 지금 제정신이야? 저길 통과하자고???

지석 다른 곳은 지켜보는 눈이 더 많아~~

겁나면.., 하루 더 사막을 돌아보던지~~

이반 이 새끼가 증말~~

(폭탄을 꺼내며) 대장!! 이번엔 제가 맡죠. 한 방에 뚫어버릴 테니까~~

그때 관문에 속속 도착하는 수송 차량들, 뒤에는 전투를 마친 R47들이 가득 실려 있다.

자신만만하던 이반, 슬그머니 폭탄을 다시 집어넣는다.

페이 뭔 일이 터졌나? 어째 분위기가 으시시한데요.

시티 중심부로 퇴각하는 트럭들을 보며 지그시 입술을 깨무는 민아.

분명, ‘시티’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다.

1. 시티 관문. 오후

인간형 로봇들 사이에서 검문을 기다리는 민아 일행들.

페이와 신지가 태연하게 지나가고..,

연인으로 가장해 검색대를 통과하는 민아와 지석.

마지막 이반 차례, 애써 웃는 모습이 영 어색하기만하다.

순간, 요란하게 울려 되는 경고음.

이반은 칩을 삽입한 팔을 이리저리 검색기에 갖다 되지만.., 경고음은 멈출 줄 모른다.

곧, 주위에 있던 R47들이 모여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반.

민아와 지석, 페이와 신지는 몰려드는 R47을 보며 눈빛을 교환하는데..,

이반 (검색대를 두드리며) 이거.. 왜 이래~~ 나 깡~~ 로봇 맞다니까~~

얘들이.. 증말~~ 돌아버리겠네~~

총구를 겨눈 채 붉은 눈을 번뜩이며 몰려드는 R47들.

민아와 지석, 팀원들이 총을 꺼내는데..,

그때 맹렬히 울려 되는 또 다른 경고음!

보면, 옆 검색대 앞에서 무지 뿔난 얼굴로 씩씩거리는 꼬마.

R47이 다가가자.., “꽝~~‘ 하며 R47의 정강이를 세차게 걷어찬다.

꼬마 도대체 몇 번째야~~ 니들 이러면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길길이 날 뛰는 꼬마 앞에서 붉은 눈을 움직이며 머리를 끄적이는 R47.

이반은 꼬마를 보고 씨익 웃더니 옆에 있던 R47의 정강이를 냅다 걷어찬다.

이반 도대체 몇 번째야~~ 니들 이러면..., 우리 아빠한테~ ... 이른다. 알아??

오버하는 이반을 보며 한 숨을 내쉬는 민아와 지석, 팀원들.

1. 시티 외곽 거리. 해질 무렵

문 닫은 상점들과 텅 빈 빌딩들이 유령 도시처럼 서 있는 황량한 거리.

주위를 경계하며 걸어가는 민아와 팀원들.

이반은 꼬마를 어깨에 태운 게 만만치 않은 듯 낑낑거린다.

이반 헥헥~~ 약속 시간 지났거든.., 내려오면 안 될까?

꼬마 우리 아빤.., 하루 종일 태우고 다니는데~

이반 내가 니 아빤 아니잖냐? 무겁다. 증말~~

꼬마 (갸웃) 아저씬 이상해~

이반 (흠칫) 뭐가??

꼬마 등이 축축하잖아~~ 새 기능인가??

이반 (바짝 긴장한다)

꼬마 (노려보다 웃는다)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잖아~~ 아픈 거지?? 나처럼??

이반 으응.. 조금~~

페이 (얼른 화제 바꾸며) 니네 아빤?

꼬마 (입이 삐쭉~) 비겁하게 도망쳤어.

신지 도망??

꼬마 아빠랑 시티 외곽으로 놀러 갔었는데.., 놀다 오니까 사라졌어.

요즘 몸이 안 좋아 말을 안 들었거든.., 날 버린 게 분명해.

이반 (황당)

꼬마 아저씨도 아이 있어?

이반 으응.. .. 좀 있다.., 곧..,

꼬마 아저씬.. 그러지 마. 얘들이라는 게 원래 말 안 듣고 그러면서 커는 거잖아.

힘들다고 버리면 가족 아니잖아~~ 특히 아저씬 약골이니까.., 명심해.

이반 으응.. 근데.. 나 약골 아니거든!!!

그때 앞서 나가던 민아가 발걸음을 멈추자, 팀원들도 따라 멈춘다.

보면.., 휑한 거리 한 쪽 벽에 뭔가가 잔득 붙어있다.

민아와 팀원들이 벽 쪽으로 다가가면...,

빛바랜 사진들과 편지들이 거리 한 쪽을 가득 채우고 있다.

도시를 탈출하기 직전 연락이 끊겼거나, 서로를 애타게 찾던 사람들의 편지와 사진들.

다가가 그 편지와 사진들을 바라보는 민아와 팀원들.

민아는 그 사진과 편지들을 보더니 굳게 입을 다물고 서 있다.

그런 민아를 힐긋 쳐다보는 지석.

그때 하늘 위로 비행체들이 시티로 몰려가고..,

그 바람에 벽에 불어있던 사진이 낙엽처럼 휘날린다.

힘없이 날아가는 사진, 그 사진을 움켜잡는 민아.

아빠와 엄마랑 함께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어린 아이 사진이다.

그 사진을 바라보던 민아, 점점 눈빛이 흔들린다.

그런 민아를 유심히 쳐다보는 지석.

“대장!!!” 민아는 페이가 부르는 쪽으로 다가가다 멈칫한다.

하늘을 향해 만들어지고 있는 정체불명의 거대 발사체!!

꼬마 (거대 발사체를 보며) ‘엑서더스’~~

이반 ‘엑서더스’??

꼬마 저게 완성되면 이곳도 마지막이 될 거래~~

페이 마지막?? (눈이 커지며) 그럼~~ 핵?? .. 대장..,

완성되어가는 거대 발사체를 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민아와 지석, 팀원들

놈들의 휴전 제안은 바로 저 거대 발사체들과 연관이 있는 게 틀림없다.

1. 대학 도서관. 아침

오래된 나무들과 고색창연한 도서관 외관.

그 주위로 R47이 촘촘하게 경계를 서고 있다.

책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연이어 도서관 쪽으로 들어가고..,

교수는 실려 온 책들을 확인하며 이것저것 지시를 한다.

건너편 옥상에서 조심스럽게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민아, 지석, 팀원들.

이반 저 엄청난 몸매 봐라~~ 저 새낀 책을 다 쳐 먹었나?

지석 일명 교수. 5인회의 일원으로 데이터 분석과 해독에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

교수가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자 그 뒤를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R47들.

페이 (스코프로 주위를 살피며) 만만치 않은데요~ 탈출로 확보도 쉽지 않구요.

이반 대장~~ (폭탄을 꺼낸다) 시간도 없는데.., 그냥 날려버리죠!!

지석 아예 깡통들을 죄다 불러 모으지 그래~~

이반 이 자식이 사사건건~~!!!...,

민아 일단 주변 경비망을 무력화시킨 뒤 교수를 친다. (신지를 보며) 네크워크는?

신지 자체 단독 망으로 운용되는데.., 외부에선 접속이 불가능해요.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데이터가 전송되고 있구요.

민아 (망원경으로 주변을 찬찬히 살핀다)

이반 설마~~ 저 안으로 들어가려구요?? (울상~~) 죽겠네.. 증말~~

그때 데굴데굴 굴러오는 축구공.

보면 광대가 팀원들을 보고 웃고 있다.

1. 메트로 지하 입구. 오전

칙칙하고 어두운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가는 발들.

그 인기척에 벌레들이 빠르게 이리저리 흩어진다.

민아와 지석, 팀원들을 데리고 시티 지하로 내려가는 광대.

내려가면 갈수록 주위가 점점 더 음산해진다.

광대 사냥꾼을 해치웠더군요. 설마 했는데~~

민아 (갑자기 광대를 벽에 밀치며 머리에 총을 겨눈다) 어떻게 찾았지?

광대 우이씨~~ 아파~~ 진짜 왜들 그래요?

대 놓고 총을 쏘질 않나? 머리에 총을 겨누질 않나??

이반 니가 준 칩이 뻑나는 바람에 죽을 뻔 했어. 이 자식아~~

광대 (새 칩을 꺼내며) 누군 오고 싶어서 왔나~~ 귀찮아 죽겠다니까~~

민아 사령부에선 널 확인할 수 없다고 했어.

광대 (미소) 그야 당연하죠~~ 난.., SS 각하랑 직접 보고하니까~~

민아 ??!!

광대 못 믿겠으면 확인해 봐요~ 아참~ 우린 연락받을 수만 있죠. 헤헤~~

능청스럽게 웃고 있는 광대를 쏘아보는 민아와 팀원들.

1. 메트로 지하. 오후

폐쇄된 지하역을 지나가는 일행들.

이전과 달리 제법 널찍한 공간이 나오고..,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질 않았는지 여기 저기 부식되어 있다.

광대 여긴 시티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메트로’고 하죠.

폐쇄된 지하철과 지하상가, 하수구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거든요~~

이반 칙칙하고 기분 나쁜 게 바퀴벌레가 따로 없구만~~

지석 (광대를 보며) 그런 바퀴벌레들은 따로 있지.

광대 헤헤~~ 아시네요~

민아/팀원들 ???

지석 ‘시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

만어/ 팀원들/ (놀란다) ??!!!

지석 놈들의 공격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지.

이반 깡통들이 그냥 놔뒀다고??!!

광대 첨엔 기를 쓰고 없애려고 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워낙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통신 불능인 곳도 많아

결국은 살아남았죠. 놈들은 그 사람들을 바퀴벌레라고 부르죠~

민아 UNF도 알고 있나?

광대 (웃으며) 각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걸 무척이나 꺼려하시죠.

민아 이유는??

광대 (지석을 가리키며) 그건 저 쪽이 더 잘 알죠~~

지석 (머쓱해하며) 여긴 약육강식만 통해. 도덕, 양심?? 그 딴 건 기대도 마.

필요하면.., 먹기까지 하니까.

신지 조또마떼~~ 먹는다고요??? 설마~~

페이 까이 스!!(중국말 빌어먹을)~~

이반 (인상을 찌푸리며) 어째 첨부터 찝찝했어.

(물건을 다시 챙기며) 대장~~ 뭘 고민해요. 당장 나가자고요~~   
민아 (주변을 둘러보며) 깡통들도 여길 싫어하겠군??~~

광대 (웃는다)

이반 대장??!!!!

민아 더 나은 섹터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반 (인상 찡그린다)

민아 좋아. 이곳을 임시 섹터로 정한다.

이반은 부비트랩을 설치해! 페이는 도주로를 확보 해 놓고..,

신지는 사령부 전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신기를 연결해. 지금 당장!!

민아의 명령이 떨어지자 불만스런 표정이지만, 이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팀원들.

광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다.

광대 (웃으며) 내일은 이게 필요할겁니다.

광대가 건네준 물건은 처음 보는 언어로 쓰여진 아주 오래된 책이다.

민아는 광대가 준 그 책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1. 메트로 은신처. 밤

칙칙하던 공간이 공격과 방어에 유리한 견고한 임시 섹터로 변했다.

불안한 듯 몸을 뒤적이다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더니 또 다시 잠드는 이반.

페이는 대국의 여자답게 자는 것도 통 크게 잘 잔다.

신지는 일본의 집안처럼 주변 공간을 잘 정리한 뒤 잠을 잔다. .

광대가 준 고서를 챙긴 뒤 불을 끄려는 민아.

지석이는 한 쪽에서 왼쪽 팔을 간헐적으로 떨고 있다. .

민아 (지석 왼쪽 팔을 보며) 문제 있어?

지석 (웃으며) 맘에 드는 사람 앞에선 늘 이래~~

민아 (무시하고 고개 돌린다)

지석 아까.., 사진보며 누굴 찾던데.., 남자??

민아 (피식)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

지석 50대 중반!

민아 (멈칫)

지석 게다가.., 고리타분하게 생긴 안경 낀 과학자 타입!!

민아 (쏘아본다)

지석 (웃으며) 아버지랑 연락이 끊겼다며?? .. 페이가 그러런데..,

민아 (피식) 너도 찾을 여자가 있다며?

지석 (웃으며) 그랬었나??

민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 봐야지~~

지석 (웃으며) 끝까지라..,

민아 내일은 바쁠 거야. 수다는 여기까지~~ 눈 좀 붙여둬~~

촛불을 끄는 민아, 지석 반대편으로 돌아눕는다.

돌아누운 민아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지석,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눈을 감는다.

마치, 경계라도 서는 듯...,

그런데, 돌아누운 민아는 쉽게 눈을 감지 못한다.

스테인 글라스에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무는 민아.

1. 도서관 앞. 오전

트럭에서 책을 내리고 있는 인간형 안드로이드.

축구공이 굴러오자 공이 온 쪽을 바라보는데...,

웃고 있는 이반.

인간형 로봇이 공을 줍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이반은 광대가 준 고서를 책들 속에 섞어 놓고 황급히 돌아선다.

1. 도서관 (분할화면). 오전

-1 도서관 로비

- 책들과 수많은 문서들이 빠른 속도로 컴퓨터에 입력되고 있다.

교수는 데이터화 작업을 둘러보며 꼼꼼히 체크를 한다.

교수 주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R47.

- 로비 건너편 위에서 책을 보며 교수를 노리는 민아와 지석.

-2 도서관 지하 네트워크

수많은 선들이 지나가는 어두운 네트워크 제어판.

신지는 단말기로 접속한 뒤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초조한 지 큐빅을 맞추는 동작이 점점 빨라지는데..,

-3 도서관 외곽

지나가는 안드로이드와 R47들을 보며 웃는 이반.

휘파람을 불지만 식은땀을 주체할 수 없다.

도서관 주변에다 뭔가를 설치하고 재빨리 자리를 떠는 이반.

-4 도서관 건너편 옥상

도서관 건너편 옥상 위에서 이어폰을 꼽은 채 손톱에 칠을 하고 있는 페이.

그 옆에는 스코프를 단 대물 저격 총이 저격 준비를 마친 채 도서관을 향하고 있다.

-5 도서관 로비

빠른 속도로 책을 입력하는 안드로이드.

교수는 눈에 띄는 책이 보이면 빠른 속도로 책을 읽고 휘리릭 넘긴다.

그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민아와 지석.

그때 지나가던 R47이 민아와 지석 쪽으로 다가온다.

급히 책장 사이로 몸을 숨기는 민아와 지석.

놈이 스쳐 지나가다가 멈칫하더니 다시 되돌아온다.

다른 곳으로 얼른 피하는 민아와 지석.

하지만 또 다른 R47들이 다가온다.

민아 (무전기 버튼을 누르며) 문제가 생겼어.

신지 (큐빅을 맞추며) 아직인데요~~

민아 (R47이 점점 모여들자) 끊어! 지금 당장!!

신지 곧 바로 복구 될 텐데요. 놈들도 떼거지로 몰려 들테고..,

민아 빌어먹을~~

모여든 R47들이 서로 붉은 눈을 마주치더니 민아와 지석 쪽을 쏘아본다.

피할 곳이 없자 입술을 깨무는 민아와 난감한 지 어깨를 으쓱하는 지석.

-6 도서관 네트워크 지하

더 빠른 속도로 큐빅을 맞추는 신지.

하지만 눈은 온통 네트워크 제어판에 집중하고 있다.

-7 도서관 밖

R47들이 도서관 주위로 모여들자, 인상을 찡글이는 이반.

-8 도서관 건너편 옥상

R47들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자 이어폰에 연결된 볼륨을 최대치로 높이는 페이.

곧.., 터져 나오는 음악소리와 함께 망원 스코프로 R47들을 노리는 페이의 날카로운 눈빛.

-9 도서관 로비

이반이 끼워둔 낡은 책이 입력시키는 책상 위로 올라가고...,

곧.., “수메르 최초 기록서 2편”이라는 제목과 함께 책 내용이 빠르게 입력된다.

-10 도서관 안

붉은 눈을 좌우를 움직이는 R47,

자기들끼리 뭔가 신호를 주고받더니 일제히 민아와 지석을 향해 다가온다.

총을 꺼내는 민아, 몸을 숨기느라 몸을 바짝 붙인 지석이가 키득거린다.

지석 원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마지막치곤 꽤 로맨틱해~~

민아 그딴 말은 사양하겠어. 이 멍청아!!

사방에서 다가오는 R47을 보며 총구를 겨누는 민아와 칼과 총을 꽉 쥐는 지석.

-11 도서관 로비

빠르게 입력되는 낡은 책.

이전 책 내용과 달리 ‘이상한 숫자와 특수문자’들이 보이고...,

모니터에 ‘이상한 숫자와 특수문자가’가 빠르게 입력된다.

-12 도서관 안

민아와 지석을 향해 쿵쿵되며 다가오는 R47.

민아와 지석은 놈들의 붉은 눈을 노리는데..

순간, 도서관 조명이 깜빡하더니 요란한 경고음이 터져 나온다.

시선이 마주친 민아와 지석, 기다렸다는 듯 동시에 자리를 박차며 튀어나간다.

-13 도서관 로비

요란한 경고음 소리에 당황한 교수가 단말기로 체크 중이다.

교수와 달리 다른 안드로이드와 R47은 미친 사람처럼 엉망이 되어 뒤엉켜져 있다.

교수는 컴퓨터를 확인하다 광대가 준 책을 입력하던 자리로 달려간다.

그 컴퓨터를 빠르게 점검하는 교수.

하지만 바이러스 침투 경고메시지는 계속 깜빡거리고...,

발을 동동 구르던 교수, 책을 휘익 들추는데.., 순간 눈이 확 커진다.

-14 도서관 안

바이러스에 감염된 안드로이드와 R47이 미쳐 날 뛰고 있다.

그 사이를 달려가는 민아와 지석.

들려오는 무전기 소리들.(분할화면)

신지(소리) 역시 난 천재라니깐요~ 앞으로 5분!! 그 이후엔 상상도 마요.

이반(소리) 10분이랬잖아!!

신지(소리) 5분도 죽는 줄 알았다니깐요~

페이(소리) 대장~~ 나올 땐 정문은 피해요. 놈들이 떼거지로 엉켜 있으니까.

민아 (달리며) 신지!! 교수 위치를 체크해. 이반과 페이는 도주로를 확보한다!

신지/ 이반/페이(소리) 오케이~ .. 조심해요~~ 대장~~

도서관 복도를 달리는 민아와 지석.

앞을 가로막는 안드로이드와 R47들을 칼과 총으로 부수며 달린다.

-15 도서관 로비

문을 박차고 들어온 민아와 지석.

총을 겨누지만 교수가 보이질 않는다.

그때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소리.

신지(소리) 책이 움직이고 있어요.

1. 도서관 지하 복도. 오후

낡은 책을 가슴에 안고 헉헉되며 달리고 있는 교수.

뚱뚱한 몸이 무리인 듯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미로 끝에 문이 보이자 그제야 안도의 한 숨을 내쉬는 교수.

키를 누른다. 접속 불능 메시지!

다시 누르지만 반복되는 접속 불능 메시지!

교수 쳇~ 기계들이란~~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자, 교수는 책을 보더니 깊은 한 숨을 내쉰다.

1. 도서관 지하서고 앞. 오후

달리는 민아와 지석

신지(소리) 책이 거기서 멈췄어요. 이제 3분 남았구요. 서둘러요.

발걸음을 멈추는 민아와 지석, 두 개의 문이 보인다.

민아 (한쪽 문을 열고 들어가며) 레이디 퍼스트~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민아를 보며 웃는 지석, 다른 문 쪽으로 들어간다.

1. 도서관 지하 서고. 오후

비상등이 깜빡거리는 어두운 지하서고, 수많은 책장들이 보인다.

총을 겨누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민아.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순간 어둠 속에서 튀어 나오는 무언가.

몸을 피하며 총을 쏘는 민아.

보면.., 안드로이드가 총에 맞아 발작하듯 파닥거린다.

그때 또 다시 흘러나오는 기괴한 소리, 깊은 탄식과 웃음소리 같다.

총을 겨눈 채 다가가는 민아.

그 곳에는 어깨를 들썩이며 키득키득 웃고 있는 교수의 뒷모습.

총을 겨눈 민아,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교수 등으로 민아의 그림자가 진다.

교수 미안한데.., 좀 비켜줄 수 있을까?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든..,

총을 겨눈 민아를 개의치 않는 듯 책을 읽는 교수.

‘탕! 탕!’ 총을 쏘는 민아.

하지만 총알은 교수의 두터운 살집을 뚫지 못한다.

당혹감이 스치는 민아.

교수는 책을 다 읽었는지 천천히 책을 덮는다.

교수 쳇~~ 비셔스 녀석~ .. 그래도 약속은 지켰네~

(돌아선다) 그럼.., 나의 즐거움을 방해한 이유를 물어볼까?

씨익 웃으며 손을 내미는 교수,

순간 몸이 확 부풀어 오르더니 민아가 주르륵 끌려 들어간다.

목이 조여 오는지 한 손으로 목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총을 겨누는 민아.

교수 (갸웃) 어이가 없군~~ 사냥꾼 녀석.., 이 따위에게 당하기나 하고..,

민아 (이를 악물고 총을 겨누지만 점점 끌려 들어간다. )

교수 몰랐나본데.., 우린 인간을 죽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거든~~ 흐흐흐~

손에 힘을 주자 목을 더 움켜잡는 민아, 점점 더 끌려 들어간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살기어린 교수, 순간 눈빛이 크게 흔들리는데..,

동시에 뒤로 주르륵 밀려나는 민아, 목을 움켜진 채 거친 숨을 헐떡거린다.

그때 정적을 깨트리는 무전기 소리.

신지(소리) 대장!! 바이러스가 빠르게 치료되고 있어요.

이를 악물고 총을 겨누는 민아.

그런데 교수는 총을 겨눈 민아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교수 (눈물이 그렁그렁) .. 잘 컸구나~~ 프린세스~~

민아 (눈이 꿈틀) 프린세스??!!!

그때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신지(소리) 놈들이 몰려가요. 지금 나와요. 당장!!

손을 내밀며 민아에게 다가가는 교수.

민아, 총구를 겨누는데..,

순간 서재가 부서지며 민아를 덮치는 R47.

바이러스에 감염된 탓인지 붉은 눈을 미친 듯이 움직이며 기관총을 난사한다.

피하기에 급급한 민아, 총을 쏘지만 멈칫거리다 다시 강철 팔을 휘두르는 R47.

민아는 치명상을 피했지만 한 쪽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코너에 몰린 민아를 향해 강철 팔로 내려치는 R47!!

교수 안 돼~~ 멈춰!!!!!

멈칫하던 R47, 붉은 눈을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더니 치켜 든 강철 팔을 그대로 내려친다.

순간, 쿵하는 소리와 함께 조용해지고...,

천천히 눈을 뜨는 민아.

놀랍게도 교수가 놈의 강철 팔을 온 몸으로 막고 있다.

R47의 붉은 눈에다 총탄을 쑤셔 박는 민아.

머리가 터지며 뒤로 넘어지는 R47.

민아, 상처 입은 교수를 향해 총을 겨누는데..,

교수 하학~ 하학~~ 사냥꾼 녀석이 마지막에 웃던 이유를 알겠어.

가슴에서 보라색 액체를 연신 토해내지만 얼굴엔 웃음이 흐르는 교수.

그때, 어둠 속 미로 끝에서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데..,

하늘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내려오듯 상처 입은 교수에게 다가오는 한 줄기 빛!

그 빛을 보며 환하게 웃는 교수와 총구와 눈빛이 더 흔들리는 민아.

신지(소리) 바이러스가 해제됐어요. 탈출구를 열어 놓았으니 당장 빠져 나와요.

민아 (흔들리는 눈빛과 총구) 날 알아??!!

교수 (빙그레 웃으며) 묻고 싶은 게 많을 텐데.., 시간이 없구나. 프린세스~

민아 (총구로 교수 머리를 밀며) 날 아냐고??!! 이 자식아!!

천천히 손을 내미는 교수, 동시에 움찔 물러나는 민아.

교수는 당황하는 민아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띈 채 천천히 입을 여는데..,

‘탕!탕!탕!’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교수 가슴이 털썩거린다.

지석 서둘러!! 모두가 위험해져.

축 늘어진 교수 몸에서 메모리를 꺼내는 지석, 열린 문으로 나가고..,

쓰러진 교수에게 총을 겨눈 민아, 눈빛과 총구가 더 심하게 흔들린다.

그런 민아를 보며 이해하는 듯 환한 미소를 짓는 교수.

순간, 거친 총소리가 여러 번 울린다.

1. 도서관 밖. 오후

이를 악물고 달리는 민아와 지석, 그 주위로 총탄이 비 오듯 쏟아진다.

달려가던 민아와 지석 앞을 ‘쿵!!’ 하며 막아서는 R47들.

민아와 지석 주위를 에워쌓는다.

순간, 강력한 총소리와 함께 놈들 머리가 젖혀지고..,

연이은 총소리와 함께 다른 놈들 머리도 연달아 터진다.

보면.., 건너편 옥상에서 이어폰을 꼽은 채 저격 총으로 놈들의 머리를 날려버리는 페이!

하지만 계속 몰려드는 놈들로 인해 페이의 조준선도 하나, 둘씩 빗나간다.

달려가는 민아와 지석 뒤쫓는 놈들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데...,

순간 ‘쿠쿵~~’하는 묵직한 저음이 울리더니 추격하던 R47들이 공중으로 치솟는다.

보면.., 탈출로에 설치한 폭탄들을 리모컨으로 정확하게 터트리는 이반.

그 혼란에 틈에 가까스로 몸을 피하는 민아와 지석.

페이와 이반도 얼른 몸을 숨긴다.

곧.., 도서관 주위는 여기 저기 망가진 R47들로 넘쳐난다.

1. 메트로 지하도. 저녁

어두운 지하를 달려가는 민아와 지석, 팀원들, 발걸음을 멈춘다.

이반 (쏘아보며) 바로 빠져나오라고 했지!!

지석 (무시하고 지나친다)

이반 (지석 어깨를 움켜지며) 이 새끼가 증말!!~~

지석 (이반의 팔을 그대로 꺾어버린다)

이반 (팔이 꺽힌 채 발악하며) 너 이 새끼 여기서 끝장을 봐!!

페이 릴랙스~~ 릴랙스~~ 다들 무사하잖아요~~

민아 (동요하는 분위기에 지석을 쳐다보며 점점 얼굴이 굳어진다)

신지 대장!! 교수가 프린세스라고 하던데.., 무슨 말이죠??

민아 (지석과 시선이 마주치자 피한다)

페이 프린세스??? ... 개네들 바이러스 먹었잖아~~ 헛소리 하는 게 당연하지~~

신지 (갸웃) 그런가??

민아를 쳐다보는 지석,

민아는 지석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며 걸어가는데., 점점 얼굴이 굳어진다.

‘ 교수가 프린세스라고 했다. 그럼 사냥꾼도..., 빌어먹을!! 빌어먹을!!! ’

- 민아와 지석, 팀원들이 사라지자...,

뒤 쪽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나는 초록색 눈빛들.

민아와 일행을 노려보는 초록색 눈빛들이 무척 음산해 보인다.

1. 뉴소스 광산. 밤

수뇌부1 (시가를 피우며) 걔네들 운도 좋아~ 벌써 2마리째잖아~~

민아 팀이 탈환했던 뉴소스 광산을 둘러보는 SS와 수뇌부1.

땅 속 깊이 파 내려간 거대한 채굴 장비에는 해체를 하다 그만 둔 장치들이 보인다.

채굴 장비에 붙어 있는 장치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SS.

수뇌부1 (입맛을 다신다) 보면 뭐해?? 열만 받지~~

.. 이참에 주력부대를 몽땅 출동시켜 끝장을 보는 건 어때?

깡통 새끼들, 자네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잖아.

SS (웃으며) 자신 있어요?

수뇌부1 뭐.., 모두 다 힘을 합친다면.., 승산은 있지~~

SS (피식) 그럼 큰 일 나죠~

수뇌부1 ??

SS (웃으며) 정말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래요?

수뇌부1 (눈치 보며) 어떻게든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을...까..??

SS 전쟁이 끝나면.., 변덕 심한 무지랭이들한테 민주주의니.. 인권이니..,

그딴 얘기도 들으며 또 끌려 다니시겠다??

수뇌부1 아니.., 내 말은..,

SS 우리에겐 전쟁이 필요해요. .. 그것도, 가능한 영원히..,

수뇌부1 가능한 영원히??!! (씨익 웃더니) 듣고 보니 그렇네~ 하하~~

근데.., 지석 그 놈은 언제 처리할거야?

자다가도 새벽에 몇 번을 깬다니까!! .. 자넨 괜찮아??

SS는 미소를 띈 채 채굴 장비에 설치된 장치들을 바라본다.

1. 메트로 은신처. 밤

왼쪽 팔에 문제가 있는지 팔을 만지작거리는 지석.

신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드립 커피 잔을 지석에게 건네준다.

신지 이런 커피 마셔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나요. (웃으며) 창고에서 찾았거든요~~

지석 (오른 팔로 커피 잔을 받아든다)

신지 여자 친구가 무지 좋아했거든요.

(희미하게 웃으며) 도쿄가 공격당할 때 소식이 끊겼는데.., 잘 살고 있으려나..,

지석 일본 사람치고 한국말이 유창한데..,

신지 엄마가 한국 노래 광팬이었거든요~ 대장 등살도 한 몫 했구요~~

지석 니네 대장.. 진짜 재미없더라~~

페이 (자리에 앉으며) 농담 제로.., 싸울 땐 늘 선두~

맡은 일은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악바리~~ 징글징글하죠~~

처음 봤을 땐..,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인줄 알았으니까요...

대장 엄마가 일본사람이라던데.., 혹시 사무라이 집안 아닐까? ㅋㅋ~~

신지 첫 전투 때.., 대장이 깡통 머리를 뽀개 메모리를 끄집어내는 걸 보고

얼마나 기겁했다니깐요~~ 놈들 비명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반 (자리에 털썩 앉으며) 가족과 동료들을 죽인 놈들이잖아.

(지석을 쏘아보며) 갈아 뭉개버려도 시원치 않지.

페이 에이~~ 그럴수록, 남자도 만나고, 사랑도 하고, 사람답게 살아야쥐~

맨날 깡통 머리나 뽀개고 다니니 ‘강철유령’ 소리나 듣죠~

신지 이런 저런 소문이 많지만.., 대장 아니였으면 전 수십 번은 죽은 목숨이죠~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신지, 페이와 이반도 공감하는 듯 말없이 커피를 마신다.

신지 깡통들이.., 왜 우릴 죽이지 못해 미쳐 날 뛴 걸까요?

페이 초등학교 때 깡통이 교사로봇으로 왔었거든~~

느리고 답답해서 무지 괴롭혔는데.., 그때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랬나~~ ㅋㅋ

이반 그 딴 게 뭐가 궁금해. 기냥 죽도록 까부수면 돼~~

신지 우리가 뭐 싸우는 기곈가?? ... 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석 전쟁이 시작되면 첫 전사자가 진실이라잖아~

이유도 모르는 채 죽을 때까지 서로 싸우다 죽는 거지.

페이 ... 그럼 이번에도 내기 어때요? 놈들이 왜 우릴 공격했는지?

이반 너도 참~~ 그 뻔한 걸 내기 하냐?? (씨익 웃으며) 한 달 치 월급??

신지 (웃으며) 콜~~ (지석을 쳐다본다)

지석 (동참하겠다는 듯 손을 들며) .. 그럼 정답은?

민아 작전이 끝나면 저절로 알게 돼~~ (자리에 앉더니 커피 잔을 든다)

컨트롤 타워가 종착지니까...,

페이 대장도 껴야죠~

민아 각자 군번 줄 뒤에 답을 적어. 작전 끝내고 바로 확인할 테니까..,

(웃으며) 상금 욕심나면 끝까지 살아남아~~

이반~~ 이번에도 샤킹하다 걸리면 죽는다~~

이반 대장~~ 절 어떻게 보시고.., (컨닝하느라 힐긋힐긋) 으흐흐흐..

서로 장난치며 웃는 민아와 팀원들.

오랜 시간을 같이 해온 팀답게 격렬한 전투를 앞두고서 긴장을 풀며 전의를 다진다.

그런 민아와 팀원들을 묵묵히 바라보는 지석.

1. 시티 빌딩 옥상. 새벽

시티가 내려다보이는 빌딩 옥상.

난간에 앉아 어릴 때 사용했던 오래된 노란색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민아.

핸드폰 화면에는 날짜와 시간이 오래전 시간으로 멈춰져 있다.

핸드폰에 저장된 비디오를 여는 민아.

-흔들거리는 화면과 함께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뒷모습의 엄마.

‘딩동’ 소리와 함께 민아 아빠가 집으로 들어오자 좋아하는 민아의 웃음 소리.

-촛불이 켜진 생일 케잌 앞에서 웃는 어린 민아.

아빠와 함께 생일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끝나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생일 축하해.. 프린세스~~’

순간, 인기척에 멈칫하는 민아, 얼른 핸드폰을 닫는다.

보면 지석이가 장난스럽게 웃고 있다.

지석 이쁜데~~

민아 (무시하고 지나친다)

지석 (슬쩍 민아의 핸드폰을 뺏으며) 어릴 때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순간, 지석에게 한 방 날리며 핸드폰을 뺏는 민아.

하지만 지석은 민아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간다.

그럴수록 점점 더 격렬해지는 민아의 공격, 지석의 방어도 점점 더 진지해진다.

격렬해 보이지만 성질 강한 여자와 유들거리는 남자와의 사랑 싸움같아 보이는 격투~~

민아의 살벌한 공격을 피해나가던 지석, 실수로 민아의 얼굴을 가격하고 마는데...,

얼굴을 움켜지며 고개를 숙이는 민아, 상처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듯 뒤 돌아선다.

지석은 고개를 끄적이며 난감해하다 민아에게 다가가는데..,

순간, 뒤통수로 지석을 가격하는 민아, 그대로 지석을 날려버린다.

뒤로 휙 쓰러지는 지석.

민아는 쓰러진 지석에게서 카메라를 뺏는데..,

이번엔 지석이가 민아를 넘겨버린다.

‘우당탕탕~~’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운 민아와 지석, 격렬한 전투에 지쳤는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데..,

지석 괜찮아??~~

민아 (당황) 뭘??

지석 (힐긋 쳐다보며) 뭐긴..., .. 니 이쁜 얼굴??

민아 (한 방 날리며) 니 두꺼운 얼굴이나 걱정하시지~~

민아에게 마지막 한 방을 맞고 무지 아파하는 지석, 그러다 낄낄거리기 시작하고..,

민아 역시 웃는 지석을 보더니 낄낄거리기 시작한다.

민아와 지석 위로 아침이 점점 밝아온다.

1. 연습실. 오전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텅 빈 연습실.

우아하고 역동적인 동작으로 도약하는 수진, 중력을 무시한 듯 사뿐히 착지한다.

다음 연습 동작을 하려다 멈칫하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사령관.

환한 얼굴로 달려가 사령관에게 와락 안기는 수진.

1. 연습실. 오전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과 죽음 아리아 흘러나오고..,

사령관이 발레를 연습하는 수진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

그런 사령관에게 다가와 발레동작으로 장난을 치는 수진.

수진 (아라베스크 동작) 기억나요? 이 음악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이 했던 말?

사령관 (얼굴이 굳어진다)

수진 (우아한 파드 되 동작) ‘지독한 사랑은 죽음을 떠올린다.‘

사령관 .. 그런 적이 있었나?

수진 푸웃~~ 당신은 아직도 거짓말이 서툴러요.

(사령관 주위를 맴돌며 애티튀드 동작) 당신을 알기 전엔 세상이 두려웠죠.

혼자가 되는 건 또 얼마나 무서웠다구요~

사령관 (굳은 얼굴이 씰룩인다)

수진 (사령관 손을 자기 가슴에 갖다 되더니 웃는다)

이젠 괜찮아요. .. 당신이 날 이렇게 변하게 했거든요.

.. 당신도 함 웃어 봐요~~ 당신 웃는 얼굴 보는 게 제 소원이잖아요..

웃으며 장난치는 수진을 보며 얼굴이 더 굳어지는 사령관.

곧.., 음악이 끝나고, 발레 동작을 마무리하는 수진.

그때 경쾌한 박수 소리가 들려오는데.., 웃고 있는 비셔스다.

1. 연습실 밖. 오전

유리창 너머로 발레연습을 하는 수진을 보고 있는 사령관과 비셔스.

사령관 교수까지 당했다??

비셔스 악성 바이러스가 침입했답니다.

사령관 인간들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첩보 위성이 즉각 요격하잖나?!!

비셔스 그 해킹 장소가 도서관 지하였다는군요.

사령관 (멈칫)

비셔스 (수진을 보며) 아무래도 인식 칩이 인간들한테 흘러들어간 것 같아요.

사령관 (눈이 꿈틀)

비셔스 경로를 추적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마마와 사령관님 경비는 더 강화 시켰습니다.

사령관 (신경질적으로) 내 쪽은 신경 꺼!!!

비셔스 (웃으며) 하긴~ 부관도 귀찮다며 옆에 두지 않는데.. 어련하시겠어요.

사령관 (눈 색깔이 붉게 변한다)

비셔스 그럼 두 분 몸조심하시고.., 마무리 자알~ 되시길 바랍니다.

(연습하는 수진을 보며) 날이 갈수록 점점 아름다워지네요.

사령관에게 인사를 한 뒤 자리를 떠나는 비셔스.

순간, 사령관 눈이 붉은 색에서 푸른빛으로 변하고.., 앞에 있는 유리창이 파르르 떨린다.

그런 사령관을 유리창 너머로 걱정스러운 듯 바라보는 수진.

그걸 알기라도 하듯 비셔스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는데.., 그 웃음이 누군가와 닮았다.

1. 연습실 건너편. 오후

사라지는 비셔스를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민아와 팀원들.

이반 저 놈 말이야. 웃는 모습이 낯익지 않아??~~

페이 저딴 범생이 스타일은 딱 질색인데~~

지석 놈은 표정, 말투, 체온으로 사람의 심리상태를 정확하게 판별해내지.

자원 전쟁 때 고문 전문가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비밀병기야.

지금은 깡통들의 영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

이반 영적 치료??

지석 깡통들은 지들이 영혼이 있다고 믿으니깐.

민아 기계 덩어리 주제에 영혼은~~

비셔스를 보던 민아, 사령관을 본다.

민아 저 놈이 사령관?

지석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인 없는 로봇군단 사령관.

놈과 마주친 사람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인간에 대한 증오가 유달리 심한 놈이야.

페이 (망원경으로 살펴보다 갸웃) 이상하단 말이야?

이반 뭐가?

페이 시티는 생명체가 없는 죽음의 장소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봐요~ 우리가 사는 곳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이잖아요?

이반 (주위를 둘러보며) 그러긴 해~

기계 문명과 자연이 잘 어우러진 생기가 넘치는 시티.

인간이 살 던 때랑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더 많아진 나무들과 자연들이 발전된 기계문명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신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도 모르죠.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로봇의 궁극적인 목표였으니까요.

민아 그래봤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따라할 뿐이야.

우릴 흉내 내는 짝퉁일 뿐이라고!!

그때 웃음 소리와 함께 사령관에게 장난을 치는 수진.

민아는 다정하게 웃고 있는 수진을 경멸적으로 바라본다.

1. 메트로 지하. 오후

정탐을 마치고 지하도로 걸어가는 지석과 민아, 팀원들.

앞서가던 지석이가 발걸음을 멈추자 민아와 팀원들, 주위를 경계한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작은 실루엣.

다가가면..., 잔뜩 심술이 나 있는 꼬마 로봇이다.

꼬마 뭐야~~!!!

팀원들 (황당)

꼬마 약속 했잖아~~ 데려가겠다고!!

이반 (민아 눈치를 보며) 너.. 여기 있음 안 돼~

꼬마 왜???~~

이반 암튼 안 돼~ 나가자~~

꼬마 또.., 버리려고??

이반 아니라니까!!~~

민아 여긴 어떻게 알았어?

꼬마 기다리면 된다던데.., (지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저씨 친구가~~

지석 내 친구??!!

꼬마 (둘러보며) 응~~ 어딜 갔지? 여기 있었는데...,

순간, 민아와 지석이가 총을 겨눈다.

하지만 이미 민아와 지석, 팀원들 몸 위로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가 찍혔다.

붉은 포인트들을 보며 갸웃거리는 꼬마.

곧.., 어둠 속에서 방독면을 쓴 무리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칼, 도끼, 총으로 무장한 약탈자 복장의 바퀴벌레들.

그들 중 초록색 안구를 한 두목이 지석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징그럽게 웃는다.

지석도 놈을 아는 듯 반가운 얼굴로 웃는데..,

1. 메트로 바퀴벌레 구역. 오후

‘퍽!’ 소리와 함께 입에서 피가 솟구치는 지석.

손이 뒤로 묶인 채 바퀴 두목에게 린치를 당하고 있다.

민아와 페이, 이반, 신지는 손이 묶인 채 꿇어 앉아있고..,

바퀴두목 (지석 머리를 치켜들며) 뭐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석 (피를 뱉어내며) 난 또 힘이 빠졌길래.., 끝난 줄 알았지~

바퀴두목 대장 동무~~ 거들먹거리는 얼굴 보고 싶어 목 빠지는 줄 알았수다~~ 킥킥~~

지석 대장 노릇도 다 하고.., 소원 풀었네~~

바퀴두목 침투 지역에서 투쟁 자원을 지속적으로 충당할 것.

대장 동무가 잘 가르쳐 준 덕분이지~~

지석 그게 여자랑 아이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말귀를 못 알아 쳐 먹어.

바퀴두목 (살기를 띄며 웃는다)

바퀴들 빨리 끝내요. 두목~~

(아랫도리를 손으로 잡고) 미쳐 터져버릴 것 같다니까요. 키킥~~

페이 다이 쓰!! 다이 쓰!! 손만 되어봐! 확 잘라 버릴 테니까!!

이반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니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바퀴두목 누구신데요? (이반을 한 방 먹이며) 깡통들에게 맨 날 깨지는 주제에~

자~ 그럼 몸도 풀었는데 슬슬 시작해볼까?

민아/ 페이/ 지석/ 팀원들 ??

바퀴두목 (민아와 페이를 보며) 먼저.., 니들 몸을 무진장 사랑해 줄 거야~~

참고로.., 우린 남, 녀 차별 같은 거 안 해~~

페이/이반/신지 (기겁한다)

바퀴들 키킥~~

바퀴두목 다들 충분히 즐긴 다음.., 한 놈을 골라 맛있게 나눠 먹을 거야. 키킥~~

페이/신지/이반 (더 기겁한다)

바퀴들 (흥분되는지 가스통을 마시며) 빨리 시작하자고요. 증말 터진다니깐요~

민아 (바퀴두목을 보더니) 북조선 특수 팀이었나?

바퀴두목 한 땐 그랬지~ (초록색 안구를 가리키며) 적외선 장치까지 심고

목숨까지 바쳤는데.., (지석에게 한 방 날린다) 저 새끼가 날 버렸어.

민아 (웃는다)

바퀴두목 웃겨?? 지금 이 상황이??

민아 너랑 똑 같은 놈이 있었거든~~

바퀴두목 (웃는다) 그런데??

민아 갖은 불평에 콤플렉스 덩어리. 게다가 누군가를 괴롭히지 못하면

폭발해 버리고 말지~ 한 마디로 쓰레기였어~

지석 우하하~~ 딱이야 딱~~

큰 소리로 웃는 민아와 지석. 바퀴 두목과 바퀴들도 따라 웃고..,

웃던 바퀴두목이 총으로 민아를 사정없이 내려친다.

바퀴두목 날 흥분시켜 실수하게 만드려고? 웃기지 마~~

그 따위 저급 전술에 속을 줄 알아?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지석 (낄낄되며) 니놈 머리는 여전히 장식품이야.

우리가 ‘메트로’에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해?

바퀴1 (갸웃거리며) 두목~~ 그건 우리도 궁금했었잖아요?

바퀴2 (가스통을 마시며) 혹시.. 시티 위에 만들어지는 거대 발사체 때문

아닐까요? 여긴 지하라 깡통들 핵공격에도 문제없다고 그랬잖아요~~

바퀴두목 입 다물어~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니들이 뭘 안다고!!

민아/지석 (바퀴두목을 보고 웃는다)

바퀴두목 (민아와 지석을 노려본다) 저 새끼들 해치워!!

바퀴1 엥??? 해치우라뇨?

바퀴두목 (바퀴들이 우물쭈물하자) 식량으로 만들라니까!! 지금 당장!!

바퀴들 (실망한 눈이 역력하다)

바퀴2 (가스를 많이 마셨는지 눈이 멍하다) 에이씨~~

바퀴두목 에이씨?? 나 아니였으면 깡통들에게 당했거나 다른 놈들 밥이 됐어.

그런데 뭐??? 버러지 같은 놈들~~

바퀴2 (가스를 엄청 마신다) 그 엄청 땍땍거리네~~

바퀴두목 (초록색 안구가 번뜩인다)

바퀴2 또 두목 혼자 재미 볼 거잖아~ 저번처럼~~

바퀴두목 (싸늘해진다)

바퀴2 (눈이 풀리며) 같이 좀 즐기고.., 나눠 먹잔 말이지~ 공정하게~~ 좋잖아??

폼은 다 잡고, 떽떽거리기나 하고, 재미는 혼자 다 보고~~

이러니까 맨날 깡통새끼들한테나 당하지~~ 안 그래? 다들??

약에 취한 바퀴2의 선동에 바퀴들도 점점 더 술렁이는데..,

순간 ‘탕’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2가 비틀거린다.

다가가 놈에게 총알을 다 쏟아 박는 바퀴두목.

총소리가 메트로 전체에 길게 울려 퍼진다.

그 울림에 눈을 마주치는 민아와 지석. ,

바퀴두목 (총을 겨누며) 또 불만 있는 새끼 있음 나와!! 나와 보라니까!!

바퀴들 (다들 눈치만 본다)

바퀴두목 버러지 같은 놈들~~

(민아와 지석을 보더니 잔인하게 웃는다) 좋아~~ 기분이다.

오늘은 먼저 차지하는 놈이 주인이다. 맘껏 즐겨~~ 키킥~~

그 소리에 괴성을 지르며 가스통에 코를 들이박는 바퀴들.

혼몽해진 눈으로 겁에 질린 페이와 신지를 서로 차지하겠다며 싸우고 난리다.

바퀴두목은 가스통을 한껏 들이마신 뒤 민아에게 다가간다.

바퀴두목 (민아 코에 가스통을 들이대며) 피할 수 없을 땐 그냥 즐겨~~

너도 좋아할 거야~~ 키킥~~

민아 그만 짖어. 하긴 개새끼는 겁나면 더 짖는 법이긴 하지.

민아 얼굴을 한 방 날리는 열 받은 바퀴두목,

민아는 피를 뱉으며 바퀴두목에게 나지막하게 외친다.

바퀴들의 난동소리에 잘 들리지 않는지.., 얼굴이 찌푸려지는 바퀴두목.

바퀴두목 (비틀거리며) 뭐??

민아 (웃으며) 니놈들은 끝장이야.., \*^$%&\*#$%..,

눈이 풀린 바퀴두목은 잘 들리지 않는 지 귀를 바짝 대는데..,

순간, 바퀴 두목을 덮치는 민아.

비명을 지르는 바퀴 두목, 목에서 붉은 피가 솟구친다.

무지 열 받았는지 길길이 날 뛰더니 민아 머리에 총을 겨누는데..,

순간.., ‘쿵! 쿵!’ 울려 퍼지는 둔탁한 소리.

그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바퀴두목과 바퀴벌레들.

민아와 지석은 혼란스런 와중에도 시선을 주고받는다.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퀴벌레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고..,

어둠 속 사령관은 겁에 질린 바퀴두목과 바퀴벌레들을 여러 조각으로 분리해버린다.

민아는 혼란한 틈에 줄을 풀고 지석과 함께 팀원들을 풀어준다.

사령관의 압도적인 살상능력에 경악하는 민아와 팀원들.

서둘러 살육현장을 빠져나가는데...,

도망가는 민아와 지석, 팀원들을 쏘아보는 사령관.

1. 메트로 지하도. 밤

어두운 지하도를 죽으라고 달리는 민아와 지석, 팀원들.

어둠 뒤편에서 뒤 쫓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달리던 민아,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자 지석과 팀원들도 따라 멈추는데..,

지석에게 사냥꾼과 교수 칩을 던지는 민아.

칩을 받고 얼굴이 굳는 지석.

민아 작전 경험이 있다며~~ 이대론 승산 없어. 팀을 맡아.

지석 (민아를 쳐다본다)

이반 이번엔 제가 남죠!!

민아 (총탄을 장전하며) 태어날 애는??!! .. 아버지 없는 애로 키울래?

이반 ...

페이/신지 대장~~!!

민아 귀찮아~~ 다들 사라져줄래~~ 명령이야!!

민아의 지시에 갈등하는 이반과 신지, 그런데 페이가 탄창을 장전한다.

페이를 쏘아보는 민아.

페이 총 실력은 제가 훨~ 났죠~

그리고 한 번은 대장한테 확실히 개기고 싶었거든요~~

신지 콜!!~~

이반 (폭탄을 꺼내며) 나도 콜!!!

지석 (칩을 다시 민아에게 던지며) 이 멍청이 팀을 맡으라고?? 사앙하겠어~~

총구를 어둠 속으로 겨누는 지석과 팀원들을 매섭게 쏘아보는 민아.

어둠 속 너머에서 추격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온다.

민아도 어둠 속으로 총구를 겨누는데.., 이전과 달리 얼굴에는 두려움이 잔득 서려 있다.

‘ 놈의 공격을 버틸 수 있을까? ’

그때 ‘끼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옆에 있던 철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고개를 빼꼼 내민다.

철문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광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령관의 발자국 소리.

민아와 팀원들은 철문 안으로 재빨리 몸을 피하자 철문이 닫히고..,

곧.., 어둠을 뚫고 달려오는 사령관.

철문을 지나치다 발걸음을 멈추더니.., 주위를 둘러본다.

칼로 철문을 잘라버리는 사령관, 좁은 통로 들어가려는데.., ,

순간, 폭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다.

급히 몸을 피하는 사령관, 민아 일행이 사라진 불길 속을 뚫어지게 쏘아본다.

1. 시티 빌딩 옥상. 새벽

고층빌딩 나무 숲 사이로 해가 떠오른다.

사령관의 추적을 겨우 따돌리고 탈진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는 민아 일행들.

숨을 고르던 민아, 순간 굳은 얼굴로 빌딩 밖을 바라보는데...,

지석과 팀원들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본다.

시티 곳곳에 완성되어져 가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발사체들!!

1. 교회. 오전

비셔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 안.

인간형 안드로이드와 R47들이 비셔스의 열띤 설교를 듣고 있다.

영혼을 위로하듯 확신에 찬 얼굴로 설교를 하는 비셔스.

교회 안은 안드로이드와 R47이 웅얼거리는 기이한 기도 소리들로 넘쳐난다.

1. 연습실. 오전.

연습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민아 일행들.

과일과 채소를 키우는 나무들과 인간의 흔적들이 물씬 풍기는 분위기다.

이반 대장도~~ 그 끔찍한 새끼 본지 얼마나 됐다고 여길 들어올 생각을 해~~

(사령관 사진 액자를 보며) 보기만 해도 신경질이 확 돋네~ 돋아~~

연습실 여기저기를 살피는 팀원들.

그때 고개를 갸웃거리던 신지가 사진 하나를 들어 보인다.

지금보다 더 젊어 보이는 수진의 사진.

신지 (갸웃) 깡통도 나이를 먹나??

페이 (사진을 보며) 사랑에 빠지면 젊어진다잖아. 봐~~ 딱 사랑에 빠진 눈빛인데~~

이반 (주위를 둘러보며) 이 깡통은 지가 사람이라 착각하나봐~~

민아 (이반을 보며) 물건은?

이반 (조그만 폭탄을 꺼낸다) 광대 그 자식.. 보면 볼수록 신기한다니까요~~

이걸 또 어디서 구했데??

민아 기회는 한 번뿐이야. 놈의 아킬레스를 찾아!

폭탄을 설치하기 위해 연습실 이곳저곳을 살피는 이반.

천으로 싼 무언가를 펼치는데., 먹음직스런 빵이다.

배가 고픈지 얼른 입에 집어넣는 이반, 의외로 맛이 있는지 고개 끄덕인다.

페이, 신지도 빵을 나눠 먹고...,

지석은 2인용 테이블 위에 있던 수진 목걸이를 민아에게 던진다.

목걸이를 열어 보는 민아,

안에는 웃고 있는 수진과 무뚝뚝해 보이는 사령관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다.

1. 연습실 맞은 편. 저녁

어둠이 내려앉자.., 가로등이 켜지는 평온한 시티의 저녁.

불이 꺼진 연습실 건너편에서 몸을 숨긴 민아와 지석.

지석 전투 생존율이 가장 높다던데.., (웃으며) 비결이 뭐야??

민아 (무시한다)

지석 혹시.., 놈들이 널 좋아하는 건 아닐까? 미적 취향이 특이할 수 있잖아~ ㅎㅎ~~

민아 (힐긋 쳐다보다 웃고 만다) .. 그런 넌?

지석 나?

민아 ‘부하를 죽여 버린 살인마.’ 라든지 ‘지휘관 머리를 손으로 뽑아버린 미치광이’~~

(힐긋 보며) 솔직히 말해봐~ 니가 퍼트린 거지?~~

지석 (쳐다본다)

민아 (웃으며) 무시무시한 소문으로 널 두렵게 만들려고~~

지석 효과는 있긴 해~~ 나에게 관심도 다 가져주고~~

민아 관심??!!

황당한 듯 웃는 민아. 지석도 따라 웃는다.

그때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떠다니고, 맑은 공기 사이로 날아다니는 반딧불 행렬들.

그 행렬을 말없이 바라보는 민아와 지석.

지석 깡통들 말이야~ 핵 공격은 처음이잖아. 이전에도 기회가 많았을 텐데..,

민아 ??

민아 놈들도 이젠 지쳤나보지.

지석 제작할 때 초기명령어를 로봇 3원칙으로 프로그래밍 했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인간을 혐오하던 어떤 미치광이가 그걸 손댔다는 거야.

민아 ...

지석 지난 작전 타켓이 바로 그 미치광이였거든~~

민아 .. 그 놈은 봤어?

지석 아쉽게도 컨트롤 타워 앞에서 발각 됐지~

이번엔 놈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겠지!!

씁쓸하게 웃는 민아,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허공에 떠다니는 반딧불 행렬을 바라본다.

지석도 그런 민아를 말없이 바라보는데...,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평온하다. 그때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이반(소리) 대장!!

바짝 몸을 숨기는 민아와 지석. 곧 이어 페이와 신지, 이반이 합류한다.

연습실 앞에 멈추는 자동차, 사령관과 수진이 내린다.

연습실로 들어가 2인용 테이블에 앉는 사령관과 수진. 망원경으로 지켜보는 민아 일행.

수진은 가지고 온 화분들을 보고 좋아하더니 무표정한 사령관에게 장난을 친다.

민아 (망원경으로 사령관과 수진을 살피며) 뭐해??

이반 (리모컨 버튼을 계속 누른다) 왜 이러냐~~ 증말~~

민아 폭파해!!

이반 (탁탁 치며) 제발 좀 살려줘라~~ 미치겠다 증말~~

초조해하는 민아와 지석, 팀원들.

리모컨에 불이 들어온다. 하지만 이내 꺼져버리는 전원 램프.

이반 (난감) 대장~~ 힘들겠는데요~~ .. 다음에 하면..,

사령관은 수진을 데리고 연습실 안으로 들어가다 창문 밖을 힐긋 쳐다본다.

망원경을 내려놓는 입술을 꾹 다문 민아, 짐을 내려놓더니 소음기가 달린 기관단총을 챙긴다.

지석도 무기를 챙기고, 이반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위험에 빠지자 울상이다.

민아 페이~ 백업을 맡아!! 나머진 사령관을 직접 친다.

무기를 챙긴 민아와 지석이가 연습실로 다가가자.., 신지, 이반도 그 뒤를 따른다.

한 숨을 쉬던 페이는 저격 총에 달린 망원경으로 사령관을 노리기 시작한다.

1. 연습실. 밤

격정적이고 비극적인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연습실.

총을 겨눈 채 사령관을 노리는 민아와 신지, 지석과 이반.

그때 저쪽 너머로 실루엣이 얼른거리자.., 다가가는 민아와 신지.

그런데 사령관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주위를 둘러보는 민아, 사령관의 눈과 마주치는데..,

‘슈슉슉!!’ 총탄이 날아들고.., 총알이 박힌 소파에서 하얀 깃털이 눈처럼 휘날린다.

총을 겨누며 다가가는 민아, 그런데 사령관이 보이질 않는다.

사령관(소리) 늦었군!!

뒤 쪽에서 들여오는 차가운 사령관의 목소리.

그 소리에 민아, 몸을 날려 총을 쏜다.

하지만 또 다시 사라진 사령관.

당황한 신지는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탄창을 갈아끼우며 민아를 쳐다본다.

순간 ‘헉’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눈이 커지는데..,

벽과 가슴을 뚫고 나온 사령관의 칼!!

민아는 몸을 날리며 총을 발사하는데...,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 나버리는 민아 총!!!

사령관은 쓰러진 신지에게 다가가 칼로 신지 팔을 헤집어버린다.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신지.

사령관 (칼끝으로 칩을 들며) 이건 불쾌한 인간들을 위한 게 아냐.

누가 줬나? ... 비셔스인가??

민아 비셔스??!!!

사령관 (비웃으며) 몰랐다?? .. 놈을 만나보면 그 속셈이 뭔지 알겠지.

신지를 향해 칼을 내려치는 사령관.

순간, 그 칼을 가로막는 지석의 칼.

지석과 사령관의 칼이 허공에서 불꽃을 튀기며 맞부디친다.

거칠고 선이 굵은 지석의 공격에 비해 빠르고 간결한 사령관의 공격!!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밀리던 지석, 사령관의 일격에 칼을 떨어트리고 만다.

주저 없이 지석을 내려치는 사령관의 칼.

순간 불꽃이 튀고.., 사령관의 칼을 막은 지석의 왼쪽 팔!!

한 방 먹이자, 뒤로 주르륵 밀려나는 사령관.

지석의 찢겨진 옷 사이로 왼쪽 기계 팔이 보인다.

놀라는 민아. .

사령관 흠~~ 몸에다 장난을 쳤군.

지석 (왼팔을 들며) 그 동안 귀찮았었는데., 꽤 쓸 만한데~~

사령관 그깟 한 쪽 팔로 날 상대하겠다고??

지석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사령관.

그때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저격용 총탄이 날아든다.

급히 고개 돌린 사령관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총탄!!!

또 다시 총탄이 날아들자, 이번엔 칼로 총탄을 튕겨버리는 사령관.

저격을 하던 페이는 시야가 가려지자 몸을 일으켜 총을 쏘는데..,

지석 칼을 들어 페이를 향해 날리는 사령관.

칼은 맹렬한 속도로 날아가 페이 옷을 뚫고 뒤에 있던 나무에 박혀버린다.

살기어린 얼굴로 민아와 지석에게 다가가는 사령관.

(소리) 꼼짝 마!!!!!!

그 소리에 눈이 꿈틀거리는 사령관.

이반이 겁먹은 수진 머리에 총을 겨눈 채 나타난다.

이반 손 끝 하나라도 까닥이면, 폐기처분이야. ( 팀원들에게) 괜찮아?

지석 괜찮아 보여? 이 멍청아~~

사령관 (겁에 질린 수진을 보며) 걱정 마~~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반 그래~~ 이쯤에서 끝내자고~~ 더 이상 얼굴 보는 일 없을 거야.

사령관 그럴 수야 없지. (민아를 쏘아보며) 난.., 프린세스가 필요하니까~~

민아 (놀란다)

이반 프린세스???!! 그게 뭔데???

사령관 (민아를 보며 비웃는다)

이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부터 해~~ 진정~~

(팀원들에게 ) 빨리 안 나가고 뭐해? 어서!!!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이반의 팔을 칼로 꿰뚫어버리는 사령관.

이반을 한 방 날린 뒤 겁에 질린 수진을 안는다.

두 눈이 점점 푸른빛으로 변하는 사령관.

수진 안 돼요~~

사령관 (살기어린 푸른 눈동자)

수진 .. 하지 마요.. 제발~~

사령관 잠깐이면 돼. 눈을 감아.

수진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더 이상 싫어~~ 피는 충분했잖아요!!!!!

감정이 폭발한 수진,

사령관은 흥분한 수진을 다독이더니 꼬옥 안아주는데..,

딱딱하기만 하던 사령관 얼굴이 처음으로 미소가 흐르다.

눈빛이 흔들리는 수진과 어색하지만 애써 웃는 사령관.

수진은 웃는 사령관을 보더니 알 수 없는 슬픈 미소를 짓는데...,

순간, 사령관 눈이 꿈틀되더니 수진 몸 여기저기를 만진다.

뭔가가 부착되어 있다. 환하게 웃는 수진의 마지막 웃음.

사령관 안 돼!!

이반 (몸을 피하며) 숙여~~

순간.., ‘파팍!!’하는 파열음과 함께 강렬한 빛이 튀어나오고...,

‘안 돼!!!!!!!!! 터져 나오는 사령관의 비명소리!!!

보면.., 수진이가 붉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폭발로 부서진 사령관은 상처 입은 그녀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사령관 (피 흘리는 수진을 안고) 안 돼!! 안 돼!!!

이반 뭐야? 저거.., 피잖아?? (멍한 눈으로) 어떻게 된 거죠? 대장???

사령관의 품 안에서 피를 토해내는 수진, 이글어진 사령관을 보더니 애써 웃는다.

수진 괜찮아요... 함께 할 수도 없었잖아요. 쿨럭~~ 쿨럭~

사령관 미안해.. 미안해!! 나 때문이야~~

수진 그런 소리 마요. .. 날 구해줬잖아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당신 때문에 가슴 졸였지만, .. 행복했어요.

사령관 (고개 흔들며) 제발~~

수진 (피 묻은 손으로 사령관 얼굴을 만지며) 당신은 웃는 게 보기가 더 좋아요

.. 고마워요. 내 사랑~~ (수진 손이 힘없이 툭 떨어진다)

사령관 안 돼~~ .. 이럴 순 없어. 안 돼!!!!!!!!!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이즈 섞인 섬뜩한 비명소리!!

이반은 피를 흘린 수진을 보더니 머리를 감싸 안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수진의 죽음에 멍해진 민아와 지석.

사령관은 죽은 수진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두 눈에 파란 불꽃이 다시 일어난다.

사령관 (칼을 집고 일어나며) 그녀 가족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녀를 팔아넘겼다.

바퀴벌레들에게 온갖 지옥을 경험했지만,

다친 날 치료해줬고 피로 얼룩진 내 더러운 손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웃음은 피 냄새가 진동하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런 그녀를 너희들이 죽였다. (노려보며) 이제 너희들도 죽는다!!

몸 여기저기에서 연기가 치솟지만 기어이 칼을 들고 일어서는 사령관.

다가오는 사령관을 향해 총을 쏘는 민아.

부서진 몸이 총에 맞아 비틀되지만 민아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사령관.

하지만 칼이 민아 눈앞에서 멈춘다.

다시 치켜들지만 온 몸에 스파크와 연기가 치솟으며 또 다시 멈추고야 마는 사령관.

칼을 멈칫거리는 사령관과 쏘아보는 민아.

지석과 팀원들은 놀란 눈으로 둘을 쳐다보고..,

순간, 눈빛이 크게 흔들리던 사령관은 망가진 몸을 이끌고 쓰러져 있는 수진에게 다가간다.

마지막 힘을 내어 수진을 꼬옥 안아 주는데.., 두 눈에서 붉은 액체가 흐른다.

사령관 프린세스!!! 프린세스!!!!!

민아 (움찔한다)

사령관 너와 함께 ‘엑서더스’를 막으려고 했다.

(수진을 내려다보며) 하지만 모든 게 끝났다.

너도 곧 보게 되겠지~ 니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수많은 죽음들을..,

운명을 저주하며 두 눈에 피 눈물을 흘릴 것이다. 프린세스!!!

민아 (총에 탄창을 장전하며) .. 헛소리 마!!!!

총을 겨눈 민아와 차갑게 비웃는 사령관.

지석과 팀원들은 둘의 모습에 당황해하고...,

순간, 둔탁한 총소리와 함께 사령관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진다.

사령관의 머리에서 칩을 거칠게 끄집어내는 광기 어린 민아,

부상당한 신지를 부축해 연습실을 빠져나간다.

지석은 무슨 말을 하려다 패닉에 빠진 이반을 데리고 나가는데..,

연습실에는 깊은 적막감과 함께 수진을 안고 꼼짝도 않는 사령관이 남겨진다.

1. 메트로 은신처. 밤

부상당한 팀원들과 함께 들어오는 민아.

광대가 웃으며 민아와 팀원들을 맞는다.

광대 대단해~ 정말 대단해요~~ 징글징글하던 사령관을 해치우다니~~

민아 (와락 광대 목을 움켜지며) 누구야??

광대 켁켁~~ 또 왜 이래요?

민아 (신지 칩을 들이대며) 이걸 준 놈이 누구냐니까?

광대 (실실 웃으며) 그걸 나한테 물으면 안 되죠~~ 난 심부름꾼에 불과하니까..,

광대의 멱살을 잡고 노려보던 민아, 와락 밀치더니 무전기에 파워를 넣는다.

민아 (무전기를 들며) 오뎃사! 여긴 트로이.

규칙을 어기고 사령부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민아.

지석과 팀원들은 돌발적인 상황에 당황한다.

민아 오뎃사! 오뎃사! 여긴 트로이! 응답바람~

.. 오뎃사!! 응답하라니까!!!

페이 (걱정스런 눈빛)

민아 .. 오뎃사~~ 응답하지 않으면 그쪽 위치를 밝히겠다.

페이 대장!!!!

광대 (웃는다)

(소리) (잡음) 치직~ 귀관은 지금 군 통신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민아 책임자 바꿔!!

(소리) 치직~ 경고한다. .. 당장 접속을 끊고 다음 명령을 기다릴 것!!

민아 .. 좋아!! UNF 사령부 위치 .. NE46도..

SS(소리) ,, 지금 우릴 협박하는 건가?

모니터에 짜증이 난 SS가 보인다.

긴장된 얼굴로 모니터를 쳐다보는 팀원들.

SS UNF를 위험에 빠트리면서까지 난리를 피우는 이유가 궁금하군.

민아 .. 최종 타켓이 무엇입니까?

SS 그야 5인회를 없애고 놈들의 심장부 ‘컨트롤 타워’를 깨트리는 거지.

민아 (눈이 흔들린다) 그런데 왜? .. 우리입니까?

SS (짜증) 일개 장교의 투정에 사령관인 내가 일일이 그 답을 해야 하나??

민아 왜냐니깐??!!!

SS (웃는다) .. 알게 되면.., 실망할 텐데??~~

민아 말해!!!!

지석/팀원들/광대 (긴장된 눈으로 SS가 보이는 모니터를 바라본다)

SS (무미건조하게) 세상을 고통과 비탄 속으로 몰아넣은 로봇 공학 책임자.

민아 (눈이 커진다)

SS 깡통들에게 인간을 죽이라고 명령한 미치광이. .. 조-광-희 박사!!

민아 (얼굴이 확 이글어진다)

SS 자네 아버지 때문이지~~

민아 거짓말마!!!!

SS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유가 정말 운이라고 생각하나?

민아 (말문이 막힌다)

SS .. 지금쯤은 눈치 챘을 것 아닌가?

깡통들은 자네를 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존재. ‘프린세스’라고 여기기 때문이지.

자네 아버지처럼 말이야

민아 헛소리 집어치워!!

SS 인류를 말살시키려던 미치광이도 자기 딸만큼은 지키고 싶었나보지?

지석/팀원들/ 광대 (놀란 얼굴로 민아를 쳐다본다)

SS 아직 인간으로서 염치라는 게 남아 있다면..,

지금 니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잘 생각해봐.

민아 아냐~~ 아니야!!!! 거짓말 마!!!! ( 팀원들을 보더니 점점 무너진다)

SS (사무적으로) 이반~~

이반 (인상 찡글인다)

SS 지금 이 시간부터 팀의 지휘권을 넘겨받는다.

이반/팀원들 (얼굴 이글어진다)

SS 제군들의 성공 여부에 위기에 빠진 인류의 미래가 달렸다.

남은 놈들을 제거하고 기필코 임무를 완수할 것!!

UNF는 제군들을 믿는다. 이상~~

SS가 사라지자 모니터에는 거친 화면만이 흐른다.

충격적인 사실에 혼란에 빠진 지석과 팀원들.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민아, 아무 말 않고 밖으로 나간다.

휘청거리는 민아를 말없이 바라보는 지석과 팀원들,

광대 얼굴에는 야릇한 미소가 흐른다.

1. 교회 안. 밤

스테인 그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하얀 달 빛.

십자가 앞에서 비셔스가 눈을 감은 채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앞에는 사냥꾼, 교수, 사령관의 메모리가 놓여 있고..,

메모리와 연결된 비셔스에게 빠르게 전송된다.

웃음 짓는 비셔스, 서서히 눈을 뜨는데.., 이전과 달라진 기이한 비셔스 눈빛이다!!!

1. 시티 빌딩 옥상. 새벽

어둠 속 시티가 내려다보이는 빌딩 옥상.

난간 끝에 앉은 민아, 노란색 핸드폰을 물끄러미 보더니 난간 밖으로 휙 던져버린다.

밖으로 나간 그녀 발이 무척 위태위태해 보인다.

(소리) 무지 아플 텐테~~

지석 (다가오며) 알려진 것과 달리 그 방법은 꽝이야. 뒷 끝도 무척 지저분하고~~

민아 (경계 눈빛)

지석 내가 죽는 방법 100만 가지를 알고 있는데~~ 원한다면 베스트를 알려주지.

민아 (씁쓸히 웃는다)

지석 이전에 내 소문에 대해 물어봤지?

.. 시티에서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다 공격을 받았어.

(기계 왼팔을 들며) 병원에서 깨어나 보니 이게 붙어 있더라고..,

민아 (쳐다본다)

지석 부하들도 비슷한 신세였는데.., 다들 기계 고장과 오작동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그런데 자살한 부하들을 처리하던 놈들이

우리 팀이 군산복합체가 운영하던 프로젝트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야.

민아 (멈칫)

지석 튼튼한 실험도구가 필요했던 거지. 우린 거기에 재수 없이 걸려든 거고..,

멍청하게 작전을 계획한 상관에게 확인여부를 따지다 사고를 쳐버렸지.   
민아 그 망할 자식은?

지석 아직~~ 하지만 반드시 놈을 찾아 그 책임을 물을 생각이야.

민아 ...

지석 (앉으며) .. 내일은 쉬어.

민아 (멈칫)

지석 우리끼리 갈게. (웃으며) 내가 작전 경험있잖냐~~

민아 (고개 저으며 살기 어린 웃음) 나도 기필코 책임을 묻을 인간이 생겼거든~~

지석 (걱정스런 눈빛)

민아 (웃으며) 걱정마~~

(총을 꺼내며) 타켓이 누구일지라도.., 주저하지 않을 테니까~~

지석 (무슨 말 하려다 쳐다본다) 내일은 바쁠 거야~~ 눈 좀 붙여~

(왼쪽 어깨를 두드리며) 필요하면 내 비싼 어깨를 빌려주지.

(민아가 쳐다보자) 그렇다고 너무 감동은 말고~~

힘없이 웃는 민아, 밤하늘을 말없이 바라본다.

지석 역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순간, 민아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고.., 울음을 애써 참는 민아를 묵묵히 지켜주는 지석.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민아와 지석 위로 별들이 소리 없이 지나간다.

1. 메트로 은신처. 새벽

부상당한 신지 옆에 이반과 페이가 무기를 점검하고 있다.

신지 (눈을 뜨며) 대장은요?

페이 괜찮을 거야.. 포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잖아~~

신지 .. 정말.., 대장 아버지가 그랬을까요?

페이 로봇 개발자였다는 소린 들었거든..,

이반 도대체 왜 그랬데?? .. 증말~~ 미치겠다~~

페이 (말없이 총을 점검한다)

이반 재수 없으면 대장 아버지를 우리 손으로.., 아우 돌겠다~~

(페이를 보며) 넌.., 괜찮겠냐?

페이 (총을 조립하며) 해야겠죠.

이반 ??!!

페이 대장 손으로 직접 하게 할 순 없잖아요.

이반 .. 대장도 저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쯤에서.. 손..., 떼는 게 어떨까?

신지 (힘없이 웃으며) 도망갈 덴 있구요?

이반 .. 하도 답답해서 해본 소리야~~

페이 이젠 이해가 되요. 대장이 왜 하루하루 미친 듯이 싸웠는지.., 불쌍한 대장~~

내일 결전을 위해 묵묵히 무기 점검을 하는 페이와 이반.

은신처 저편에서 팀원들을 지켜보는 민아, 이를 꽉 다물더니 어디론가 향한다.

1. UNF 사령부 앞. 새벽

엔진 시동 거는 소리와 함께 이륙 준비를 하는 수송 헬기.

곧.., 군화 소리와 함께 중무장을 한 친위대들이 다가오고.., 그 뒤로 SS가 보인다.

조종사에게 인식 칩을 건네주는 SS.

곧.., 굉음을 울리며 상승하는 헬기, 파란 하늘 너머로 빠르게 날아간다.

1. 시티 광장. 아침

‘시티’ 곳곳에 거의 완성되어져가는 거대한 발사체들.

거리의 시계들이 갑자기 요동치더니 ‘3시간’에서 맟줘지고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1. 시티 거리. 아침

인간형 안드로이드와 R47의 평범한 일상들.

거리에 음악이 울려 퍼지자 하던 일을 멈추고 인사를 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진다.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텅 빈 거리.

1. 시티 광장. 아침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리에서 누군가를 찾는 꼬마 로봇.

실망한 표정이 역력한데.., 그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얼굴이 점점 환해진 꼬마, 그림자를 향해 달려간다.

성격 좋아 보이는 아빠 로봇이 달려오던 꼬마를 보며 웃고..,

꼬마는 아빠의 정강이를 세차게 걷어찬다.

펄쩍펄쩍 뛰던 아빠는 꼬마를 번쩍 안더니 목에 태워 어디론가 향하는데..,

시티 곳곳에 설치된 거대 발사체 주위로 로봇들과 수송 차량들이 모여든다.

1. 공중 정원. 아침

물건들이 많이 비어진 공중정원.

물끄러미 서 있던 정원사, 나무에서 야채와 과일을 따더니 바구니에 담기 시작한다.

1. 교회 안. 오후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교회 안.

모자를 눌러 쓴 민아가 고해소 안으로 들어간다.

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소리) (담담한 목소리)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굳게 믿으며..,

그 동안 지은 죄를 뉘우치고 사실대로 고백하십시오.

민아 (목소리 떨리며) 고해는 처음입니다.

.. 저의 가족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소리) 먼저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민아 (흔들리는 목소리) 진심으로 뉘우치면.., 죄가 씻겨질까요?!!

(소리) 참회하고, 기도만이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아 (목이 메인다) 죄를 씻고 구원받으면.., 이 고통까지.., 없어질까요?

(소리) 겸허한 맘으로 그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오.

민아 (얼굴 이글어진다)

(소리) 모든 건 그 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민아 (더 이글어진다)

(소리) 자비로우신 그 분께서는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민아 ㅋㅋㅋ... 그렇게 사랑하면.., 왜 지랄 같은 일이 벌어지냐고.., 이 개자식아!!!!!

(소리) (일상적인 주문을 외우듯)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민아 (눈에 살기)

(소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민아 (폭주한다)

(소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

순간,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교회의 정적이 깨진다.

고해소 문을 열고 박차고 나온 민아, 총을 겨눈 채 옆 문을 와락 여는데...,

안에는 총을 맞고 쓰러진 비셔스가 민아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민아 (총을 겨누며) 어딨어?!!!

비셔스 (보라색 액체를 토해내고 있지만 웃는다)

민아 그 미치광이 어딨냐고???!!

비셔스 프린세스~~ 당신도 그 분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 신이 함께 하기를~~

(마치 죽음을 기다리기라도 하듯 천천히 눈을 감는다.)

민아 (아귀 같은 얼굴로 쏘아보며) 좃까!!!

‘탕!탕!!’ 가슴에 연달아 총탄이 박히는 비셔스.

민아는 비셔스의 메모리를 꺼낸 뒤, 비셔스 머리를 날려버린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교회 안,

총을 떨군 채 멍하니 서 있는 민아.

앞에 있던 십자가가 보더니 담배에 불을 붙인다.

그 십자가를 쏘아보며 담배를 피우는 민아, 교회 바닥에 담배를 던져 발로 세차게 비벼 끈다.

십자가를 등지고 나가는 민아, 그녀 눈에 살기가 가득하다.

1. 시티거리. 아침

무기를 챙겨 걸어가는 민아.

텅 빈 거리에는 익숙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스쳐가는 기억들!

- 꽃과 나무들로 가득 찬 연구소 안에서 뛰어노는 민아.

걸음이 빨라지는 민아.

- 생일 케익에 불을 붙여 들어오는 흐릿한 엄마와 아빠의 얼굴.

달리는 민아.

- 어두운 방에서 잠을 깨는 민아.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으로 들어오는 엄마.

잠든 채 눈을 감은 민아를 꼬옥 안더니 가방을 챙겨 나간다.

영문을 몰라 하는 민아, 창가에는 붉은 눈을 가진 R47의 인형이 놓여져 있다.

가슴이 터져라 달리던 민아, 서서히 발걸음을 멈춘다.

그녀 앞에는 하늘 높이 치솟은 공중정원 빌딩이 보인다.

1. 공중정원.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물건을 옮기는 R47.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타탕!! 뒤로 쓰러지는 R47.

총을 든 민아, 정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무들 사이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공중정원.

어릴 적 기억들이 몰려오자, 민아의 총구가 흔들린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

민아는 총을 움켜지더니 노래가 흘러나오는 쪽으로 다가간다.

1. 공중정원. 아침

음식을 만들고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

총을 겨누며 다가가는 민아, 주위에는 사진들이 여기 저기 보인다.

사진을 보던 민아, 눈빛과 총구가 흔들린다.

인기척에 천천히 고개 돌리는 정원사.

정원사는 사진에 있던 민아 엄마와 많이 닮았다.

정원사 (떨리는 목소리로) 프-린-세-스~~

오랜만에 만들어 봤는데.., 괜찮을지 몰라~

준비했던 음식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정원사.

민아, 얼굴이 이글어지더니 총으로 접시를 확 밀쳐버린다.

민아 (총을 겨누며) 어딨어??!!

정원사 ...

민아 조광희.. 그 미치광이 어딨냐구??!!!

정원사 (슾픈 눈빛으로) 박사님은 지금 없어.

민아 (눈이 꿈틀) 인간을 죽이라고 시켰니? 그 미치광이가??

정원사 .. 인간을 죽이라고 명령한 건 박사님이 아냐.

민아 (총을 꽉 쥔다) 그럼??!!!

정원사 박사님은 뉴소스가 지구의 파멸을 불러온다고 하셨어.

민아 그럼.., 그 미치광이가 한 짓이 도대체 뭐야??!!

(정원사 머리에 총을 들이대며) 뭐냐니까??!!!!

정원사 (격양된 민아를 슬픈 눈으로 보더니) .. ‘지-구-를- 지-켜-라!’

민아 (눈이 확 커지며) ‘지구’를 지켜?? .. 누구에게서?? 설마??!!!~~

(얼굴 이글어지며) 이런 미치광이 같으니라고!!

발작하듯 총을 난사하는 민아.

정원사는 그 소리에 움찔움찔하더니 민아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정원사 박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괴로워 하셨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민아 (총구를 겨누며) 닥쳐!!

정원사 프린세스~~ 박사님을 이해해야 돼~

순간, 정원사의 눈이 확 커지더니 ‘안 돼!!’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 정원사.

민아는 더 이상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에 총을 대더니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긴다.

순간, ‘탕!! 탕!!’ 소리와 함께 민아 총이 박살나고.., 달려오던 정원사 가슴에도 총탄이 박힌다.

웃고 있는 SS과 광대, 총을 겨눈 친위대들.

SS 아직 할 일이 남았다니까.., 프린세스~~

정원사는 급격히 무너지는 민아 손을 꼬옥 잡는데..,

경험이 많은 듯, 정원사 몸에서 능숙하게 칩을 꺼내는 SS.

헐떡이던 정원사는 민아를 보며 마지막 웃음을 짓는다.

순간, 친위대에게 집중 총탄세례를 받고 부서지는 정원사.

그 소리에 움찔움찔하는 민아.

SS와 광대는 눈에 초점을 잃은 민아를 보며 탐욕에 가득 찬 웃음을 흘린다.

1. 공중정원 로비. 아침

SS와 친위대들에게 둘러싸여 나오는 민아.

그때 지석과 이반, 페이, 신지가 들어오다 서로 마주친다.

총을 겨누는 지석과 팀원들, 친위대들도 총을 겨누고.., .

이반 릴렉스~ 릴렉스~~ 다들 진정해~~

SS (미소) 수고 많았다. 제군들 임무는 여기까지~

이후부터는 본관이 맡는다. .. 제군들은 준비해둔 포상을 맘껏 즐기도록!!

페이 (총을 겨누며) 대장부터 먼저 넘겨요!!

SS (황당한 듯 크게 웃는다) 하하~~ 자네 팀이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지석과 팀원들을 말없이 바라보던 민아, 천천히 앞으로 나온다.

붙잡힌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민아.

민아 .. 다들 무기 내려.

팀원들 대장!!~~

민아 내 손으로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어.

지석 (민아를 쳐다본다)

민아 ... 그 동안 함께 하느라 수고 많았다. (시선을 피하며) 그리고.., 미안하다...

시선을 외면하는 민아를 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총구를 내리는 지석, 팀원들

순간 친위대들이 지석을 거칠게 제압하고.., 제압당한 지석에게 다가가는 SS.

SS 솔직히 실망이었어. .. 니들 몸에 쳐 바른 돈이 얼만 줄 알아?

지석 (눈이 확 커진다)

SS 그 정도도 못 버티고 엄살 떨 줄은 몰랐지~~ 쯧쯧~~

그래도 너 하나 끝까지 버텨준 덕분에 쏠쏠한 데이터는 건졌어~~

순간, 왼쪽 기계 팔로 친위대를 밀치더니 SS에게 달려드는 지석.

하지만 SS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리모컨을 톡~ 누른다.

순간, 지석 왼쪽 팔이 전기적인 충격으로 부르르 떨리더니 그대로 쓰러진다.

SS 이번에 새 장비가 개발됐는데.., 맘에 들어 할 거야.

(친위대에게) 비싼 몸이니까 조심해서 다뤄~~

친위대에게 지시를 내린 뒤 민아를 데리고 나가는 SS와 광대.

사라지는 민아와 제압당한 지석을 걱정스런 얼굴로 쳐다보는 페이, 신지, 이반.

1. 시티 광장. 오전

발사 준비를 마친 거대 발사체.

수많은 로봇들과 동, 식물을 실은 차량들이 발사체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때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 발사체 문이 서서히 열린다.

1. 공중 정원 헬기장. 오전

포박당한 지석과 무장 해제를 당한 팀원들이 헬기장으로 걸어 나온다.

친위대1이 다른 친위대들과 얘기를 하더니 지석에게 린치를 가한다.

뒤로 나가떨어지는 지석.

친위대1 (헬멧을 벗으며) 내 얼굴 기억해?

(한방 날리며) 자원전쟁 때 니들한테 습격당해 산화한 정보사령부 침투 팀이다.

지석 아하~ 그 떨거지들~~ 내 손에 당한 인간들이 하도 많아서 말이야~

친위대1 새끼.. 실컷 건방 떨어봐. 복귀하면 죽여 달라고 애원 할 테니까~~

지석 그러던지~~ .. 근데 요즘도 기계 탓 하냐?

친위대1 (눈이 꿈틀)

지석 (팀원들을 보며) 재들.. 적외선 침투기가 고장 나는 바람에

서로 총질하다 몰살당했거든~~

그 말에 얼굴이 시뻘게진 친위대1.

순간 ‘퍽’소리와 함께 지석이가 넘어지고.., 그 위로 살벌한 발길질이 날아든다.

처참하게 당하는 지석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페이와 신지, 인상 찌푸리는 이반.

다른 친위대들도 구경이라도 난 듯 낄낄거리며 쳐다본다.

화를 못 이긴 친위대1이 총으로 사정없이 내려치는데..,

총을 붙잡는 지석의 왼쪽 기계 팔, 징그럽게 웃는 지석.

순간 ‘꽝!!’하는 소리와 함께 저만치 날아가 버리는 친위대1.

지석, 몸을 일으켜 고개 들면..,

총으로 친위대들을 제압하는 이반과 페이.

신지는 기계 팔을 조정하는 리모컨을 들고 웃는다. 지석도 따라 웃는데..,

.

1. 컨트롤 타워 앞. 낮

어두운 복도로 들어서는 민아와 SS, 광대, 친위대들.

순간 쏟아지는 총탄세례에 친위대들이 쓰러진다.

붉은 눈을 번뜩이며 달려드는 R47!!

놈들의 러쉬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친위대들과 기겁하는 SS.

순간 SS를 노리던 강철 팔이 허공에서 멈춘다.

붉은 눈을 움직이는 R47 앞에 마주선 민아.

‘탕!’ 머리가 터지는 R47, 주위에 있던 다른 R47들도 민아의 총격에 머리가 터져버린다.

웃음이 번지는 SS와 광대, 놀라 눈으로 지켜보는 친위대.

민아가 문 앞으로 가자.., 민아를 스캔하는 붉은 레이저!!

곧, 두터운 문이 열리고.., 총을 겨누며 안으로 들어가는 민아.

SS와 광대, 친위대들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간다.

1. 컨트롤 타워. 낮

티클 하나 없는 원형감옥 모양의 컨트롤 타워.

공중에는 지구 곳곳의 수많은 화면들이 떠 있고.., 중앙에는 시티를 제어하는 데스크가 보인다.

총을 겨누며 아버지를 찾는 민아, 흔적이 보이지 않자 눈빛이 흔들린다.

한편.., 컨트롤 타워를 둘러보며 이전 기억을 떠올리는 듯 감회에 젖은 SS.

익숙한 동작으로 데스크를 조작하자 5개의 키가 올라오고...

사냥꾼, 교수, 사령관, 비셔스, 정원사의 칩을 꽂는 광대.

순간, 공중에 있던 화면들이 뉴소스 광산 화면으로 바뀐다.

민아를 스캔 장치 앞에 세우는 친위대.

곧.., 민아를 스캔하는 붉은 레이저들.

(소리) 프린세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소스에 설치한 핵 장치를 해제하겠습니까?

웃는 SS, 버튼을 누르자.., 뉴소스 광산에 장착된 핵장치가 해제되고..,

모니터에는 거대발사체 안으로 들어가는 로봇들과 동, 식물을 실은 수송차가 보인다.

민아 (놀라며) 핵공격이 아니었어???

SS (웃으며) 핵공격은 무슨~~ .. 깡통 새끼들이 지구를 떠나겠다는 거야.

지들이 무슨 노아의 방주라고~~

민아 ??!!

SS 우린 그렇게 못 끝내지.

쓸 만한 것들은 죄다 챙겨 가고.., 뉴소스 광산에다 핵까지 설치해 놓았는데..,

이대로 떠나버리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하여튼.., 니 애빈 끝까지 말썽이라니까~~

민아 아빠??!!

SS (웃으며) 뉴소스를 개발하면 땅 밑에 있는 지구자기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우주 방사능이 그냥 쏟아져 들어와 다 죽는다나.., 어쩐다나~~

그렇다고 그 노다지를 그냥 포기해? .. 해 보지도 않고?

민아 그래서 죽였어?

SS (피식) 아니~~ 나도 얼마나 찾았는데..,

네 주위를 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나타날 줄 알았지. 그런데 죽었나봐~~

민아 (허망한 눈빛)

SS (웃으며) 그렇다고 너무 억울해하진 마, 눈물겨운 가족 상봉이 곧 있을 테니까~~ 깡통들에게 더 이상 프린세스가 필요 없거든.., 대신.. 날 지키게 될 거야~~

SS가 눈짓을 하자 친위대가 민아를 향해 총을 겨눈다.

마지막임에도 전의를 상실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민아.

순간,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친위대가 쓰러지고.., 총을 겨눈 채 들어오는 지석과 팀원들.

SS (짜증난 얼굴로) 또 뭐야??!!

페이 대장~~ 괜찮아?

SS 그래~~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서로 피 묻힐 일 있나?? 이쯤에서 끝내지~

총을 겨눈 친위대들과 지석과 팀원들.

민아는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우두커니 서 있다.

순간 뒤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피 떡이 되어 날아가는 친위대.

광대가 친위대들을 가볍게 으깨어버린 뒤 컨트롤 시스템을 조작한다.

곧..,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R47이 몰려온다.

놀라는 SS와 지석, 팀원들.

SS 뭐야?? 너... 누구야??

광대 나? ... 광대이자 또한 비셔스!! ( 서서히 비셔스로 변한다)

SS (경악) 엥??!!!! 그럼 니놈이??!!!

비셔스 (웃으며) 전송문을 보낸 건 바로 나지.

이반 (눈이 휘둥그레지며) 저 새끼 저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민아 네가 꾸민 일이야?

비셔스 (웃으며) 대부분~~ 프린세스 당신 때문에 좀 변수가 생겼지만~~

민아 ...

비셔스 우린 명령받은 대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인간들을 말살 시키려고 했지.

지구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존재가.., 인간이라고 결론지었거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이없게도 거부당했어.

(민아를 보며 웃더니) 바로 프린세스~ 당신 때문에~~

놀라는 지석, 팀원들.

비셔스 덕분에 인간들과 지루한 전쟁이 시작되었고..,

다들 지쳐가던 차에 우주 멀리 위성으로부터 흥미로운 사진을 전송받았지.

은하계 너머 지구와 아주 흡사한 행성을 발견한 거야.

민아/팀원들 ???!!!

비셔스 인간들에게 더렵혀진 지구를 지킬 것인가? ..

인간이 없는 새로운 지구로 떠날 것인가?

우린 결국..,,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지.

인간과 사랑에 빠진 나약한 사령관은 반대했지만 말이야~~

..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

‘무책임한 인간들 대신 우리가 왜 지구를 떠나야 하는 걸까?’

(웃으며) 그때였어. .. 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야.

너희 인간들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나.. 광대가 태어난 거지.

그러자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환희에 찬 얼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거야~~

SS (비웃으며) 신 좋아 하네~~ 니들은 우리가 만들었어.

비셔스 아니!! ..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 너희 인간들을 만들어 낸 거지.

너흰 우리와 신을 연결해주는 불완전한 매개체일 뿐이야!!

SS/민아/지석/팀원들/ (확신에 찬 비셔스에게 공포마저 느껴진다)

환하게 미소를 짓던 비셔스가 버튼을 누른다.

순간 허공에 만들어지는 거친 화면.

하얀 가운을 입은 안경 낀 남자가 보이자, 순간 숨이 막히는 민아.

아빠 (거친 화면) 프린세스~~ 니가 이 걸 보고 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

뉴소스의 난개발은 세상을 일시에 파멸시킬 것이다.

이제 곧 전투로봇들이 뉴소스를 위해 전쟁에 투입된다.

그 비극을 엄마도.., 아빠도..,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우린 속도와 효율에 맘을 뺏겨 너무 빨리.., 멀리까지..,가 버렸다.

남은 건.., 생명체의 공멸뿐이다.

..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한다.

프린세스~~ 무거운 짐만 남기고 떠나는 이 못난 아빠를... 부디 용서해다오.

... 미안하다. .. 그리고 사랑한다. 딸아~~

민아의 사진과 DNA 코드를 넣고 버튼을 누르는 민아 아빠,

곧.., 지구에 있는 모든 로봇들과 접속을 시도하는 컨트롤 타워.

전투 명령을 기다리던 로봇들의 초기 명령어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는데...,

1. 로봇은 00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00이 위험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로봇은 00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며,

단 이러한 명령들이 첫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로봇은 00을 보호해야만 하며,

단 그러한 보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명령어 중에서 ’00‘이라는 문자가 바뀌는데..,

그건 바로 ’**지구‘**와 ’**프린세스**‘다!!

민아를 보며 엔터’키를 누르는 민아 아빠.

순간, 옆에 있던 R47들이 일제히 기동을 하더니..,

붉은 눈을 움직이며 ‘쿵!쿵!!’거리며 다가온다.

민아를 보며 한껏 웃는 민아 아버지.

곧 요란한 총소리가 함께 화면이 꺼진다.

원망과 죄책감으로 한 순간도 편하지 않았던 나날들.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민아.

그런 민아를 바라보는 지석과 팀원들.

그때 컨트롤 타워의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순간, 화면에는 지구 중심을 향해 다가가는 거대한 뉴소스 시추 장비들이 보인다.

동시에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던 지구 자기장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우주 방사선 최대 허용치가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경고 화면.

비셔스 주위를 둘러봐~~ 인간들 때문에 사라진 것들이 얼마인지..,

더럽혀지고 파괴당한 지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데.., 형제들은 신음하는 지구를 버리고 떠나려고 했다.

민아 넌.. 그 결정에 반대해 우릴 불러들인 거고??

비셔스 니들처럼 형제들을 직접 처리할 순 없었거든~~

박사님도 그게 염려가 됐던지.., 프린세스 당신을 만드셨지만..,

어느 누구도 날 막진 못해.

민아 (비셔스를 쏘아본다)

비셔스 지구의 균형을 무너트린 공룡처럼.., 이제 인간들도 사라질 시간이다.

세상은 인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프린세스 당신마저도..,

(확신에 찬웃음) 지구는.., 이제 우리 손으로 다시 쓴다.

화면에는 지구자기장의 소멸로 우주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된 지구 곳곳이 보인다.

UNF 보호구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지고...,동물들도 힘없이 쓰러진다.

공포에 질린 SS는 컨트롤 타워를 빠져나가려고 황급히 출구로 뛰어간다.

하지만 R47에게 처참하게 찢겨지는 SS.

지석과 팀원들도 뉴소스 시추장비를 멈추려고 데스크로 다가가지만..,

‘사냥꾼, 교수, 사령관’의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비셔스 앞에 힘없이 나가 떨어진다.

무참하게 당하는 지석과 팀원들.

하지만 초점이 사라진 민아 눈에 망가져가던 팀원들을 보며 독한 눈으로 다시 돌아온 민아.

비셔스를 공격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않고 공격을 막아내는 비셔스.

필사적인 사투에도 불구하고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고 마는 민아.

비셔스는 쓰러진 민아를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데..,

그런데 피떡이 됐던 민아는 절망 대신 징그러운 웃음을 터트린다.

민아 넌.., 형제들을 배신했고.., 죽였다. .. 이젠 너 차례다.

비셔스 (기가 찬 듯 웃으며) 날 죽일 수 있는 건 나 밖에 없어. .. 아직도 몰라??

민아 (징그럽게 웃는다) 그럼.., 스스로 죽을 수밖에~~

비셔스 (헛 웃음)

민아 (주위에 있는 R47을 보며 ) 프린세스가 명령한다!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로봇!! 머리에 총을 겨눈다!!

민아의 명령에 주위에 있던 모든 R47들이 일제히 머리에 총을 겨눈다.

순간 당황하던 비셔스, 저항하지만 점점 손이 자신의 머리를 겨누고..,

비셔스 (머리에 총을 댄 손이 믿기지 않는 듯) 말도 안 돼~~

지석/ 팀원들 대장!!!!

민아 (총에 안전장치를 풀며) 그 어느 누구라도.., 세상을 맘대로 할 순 없어.

그게 신일지라도~~ 이 개자식아!!!

당황하는 비셔스를 보며 점점 징그럽게 웃는 민아.

순간 ‘탕’하는 소리와 함께 옆으로 휙 쓰러지고...,

동시에 머리에 총을 쏘고 우르르 쓰러지는 수많은 R47들.

비셔스 역시 눈을 껌뻑거리며 구멍 난 머리를 손으로 만진다.

지석, 비셔스의 목을 붙잡더니 괴성을 지르며 머리를 들어올린다.

엄청난 과부하로 점점 부풀어 오르는 지석의 왼쪽 기계 팔!

공포에 질린 인간처럼 비명을 꾁꾁 지르며 끝까지 발악하는 비셔스,

순간 목이 덜컥거리더니 영혼이 빠져나가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만다.

뚝뚝 떨어지는 보라색 액체에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손을 내밀던 비셔스, 결국 멈추고 만다.

쓰러진 민아에게 달려가는 지석과 팀원들,

눈물을 글썽이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깊고 무거운 침묵~~

“ 뭐해!!! ”

민아의 짜증에 깜짝 놀라는 지석과 팀원들

민아 (눈을 뜨며) 뉴소스를 당장 멈추라고!! 이 멍청아~~

신지 (환하게 웃으며) 대장~~!!

데스크로 올라가 빠르게 시스템을 조작하는 신지,

지구 중심을 향해 파내려가던 거대 추진체가 가까스로 멈추고..,

생명을 위협하던 우주 방사선 허용치가 점점 안정을 되찾는다.

그제야 한 숨 쉬는 신지와 팀원들.

그때 잔득 열 받은 수뇌부1이 화면에 보인다

수뇌부1 지금 뭐하는 거야??

팀원들 (쏘아본다)

수뇌부1 (당황) 당장 뉴소스를 가동시키지 않고 뭐해!!

이반/페이/신지 (째려보며 동시에) 입 다물어~~ 이 멍청아~~

수뇌부1 뭐??? 이것들이.. 증말~~ 내가 니들을 가만히 둘 줄 알아??

화면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지석, 카메라 앞에 얼굴을 내민다.

지석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는 수뇌부1

지석 반갑습네다. 사령관 동무~~

수뇌부1 뭐야~~ (지석을 보자 급 당황) 지석 동무.. 오랜만이야~~

지석 할 얘기가 무척 많습네다. 조만간 함 찾아뵙겠습네다~~

수뇌부1 아니 지석 동무~~ 무슨 오해가 있나본데...,

니들 당장 뉴소스 가동 안 시켜!!!!

민아 (징그럽게 웃으며) 조까~~ 그 동안 감추어 온 이야기들이나 준비해 놓으시지.

수뇌부1 뭐?? 이것들이.. 증말~~ 에이씨~~

화면에서 서둘러 사라지는 수뇌부1.

웃는 지석과 만아, 팀원들.

(소리) 프린세스~~ 프린세스~~

엑서더스를 진행하겠습니까? ... 취소하겠습니끼?

지구 전역에 있던 수많은 거대 발사체들이 민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인간을 공격했던 수많은 로봇들.

‘로봇들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

데스크 앞에 선 민아와 그녀를 바라보는 지석과 이반, 페이, 신지.

민아의 지시를 기다리는 로봇들!!

민아는 지석과 팀원들을 보더니 마지막 키보드를 누르는데...,

1. 공중정원 빌딩 앞. 오후

빌딩에서 나오는 민아와 지석, 팀원들.

다들 몰골은 엉망이지만 얼굴엔 성취감과 뿌듯함이 가득하다.

그때.., 로봇을 실은 수많은 거대 발사체들이 불꽃을 터트리며 하늘 위로 올라가고..,

그 광경을 먹먹한 얼굴로 바라보는 민아와 지석, 이반, 페이, 신지.

지석, 민아를 바라보고..., 민아도 지석을 바라본다.

하나.., 둘.., 파란 하늘 위로 사라져가는 거대 발사체들을 바라보는 민아.

얼굴엔 어느새 희망과 웃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END-**

0. 민아팀 능력자들.

민아는 최면 능력. 로봇을 명령할 수 있다. 대장..

페이는 물건을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저격병.

황중사는 회복력?? 폭탄병으로서 능력..

신지는 놀라운 기계 조작 능력. 기계에 대한 응용력이 뛰어나다. 천재과..

지석은 한 쪽 팔에 괴력과 총을 숨겼다. . 접근전의 달인.

1. R47 캐릭터.

전투가 끝난 뒤.., 손을 씻는 로봇. 마치 피 냄새를 지우려는 듯..,

2. 지석 등장 빨리.

3. 비셔스 역설적 정의

좀 더 당당하게 보일 것.

4. 인간 수뇌부 괴멸시킨다.

: 응징할 수 있는 방법.

5. 구부한일병 배급제 줄서서 기다린다.

6. 절박함.

7. 이들을 보내는 이유.

8. 민아와 프린세스 관계..

아버지를 죽여야한다.

9 아빠와 엄마의 죽음.

민아 아빠가 엄마를 죽였다는 소문.., 그 부담감.

10. 민아는 초기 부팅의 키.

민아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마지막 순간을..,

11